
碩士學位 請求論文

高校生の進路選擇決定과 適應과의 關係

指導教授 許 鐵 洙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行政專攻

姜 始 瑛

1988年度

高校生の進路選擇決定과 適應과의 關係

이를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行政專攻


提出者 姜 始 瑛


指導教授 許 鐵 洙


1988年 12月 日

姜始瑛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 함

1988年 12月 日

主審 李淳熙 

副審 高明奎 

副審 許鎔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目 次

I. 緒 論	1
A.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1
B. 研究의 問題	4
C. 研究의 制限點	5
II. 理論的 背景	6
A. 進路教育과 目的	6
B. 進路選擇決定의 模型과 過程	10
C. 青少年의 特徵과 適應의 課題	15
D. 進路選擇決定과 適應과의 關係	20
III. 研究方法	24
A. 研究對象	24
B. 測定道具	24
C. 實施方法	25
D. 資料의 處理	25
IV. 結果 및 解釋	27
V. 要約 및 結論	47
A. 要 約	47
B. 結 論	49
參 考 文 獻	51
英 文 抄 錄	57
附 錄	60

表 目 次

〈表Ⅱ-1〉	職業發達段階	8
〈表Ⅱ-2〉	進路選擇決定에 影響을 주는 要因	13
〈表Ⅱ-3〉	進路決定 要因	15
〈表Ⅲ-1〉	研究對象者의 集團別 分布	24
〈表Ⅳ-1〉	卒業 後의 計劃	27
〈表Ⅳ-2〉	性別에 따른 社會 進出 選擇分野	28
〈表Ⅳ-3〉	性別에 따른 大學進學 選擇分野	29
〈表Ⅳ-4〉	集團別 進路決定 最初時期	30
〈表Ⅳ-5〉	性別에 따른 進路變更 回數	31
〈表Ⅳ-6〉	進路選擇決定 理由	32
〈表Ⅳ-7〉	進路選擇時 影響받은 要因	33
〈表Ⅳ-8〉	適應領域別 適應程度의 男女 比較	34
〈表Ⅳ-9〉	適應領域別 適應程度의 系列間 比較	35
〈表Ⅳ-10〉	系列別 適應性의 差異	37
〈表Ⅳ-11〉	卒業 後 計劃과 適應領域別 程度	38
〈表Ⅳ-12〉	適應程度에 따른 進路選擇 傾向(社會進出)	39
〈表Ⅳ-13〉	適應程度에 따른 進路選擇 傾向(大學進學)	40
〈表Ⅳ-14〉	卒業 後 計劃, 未來觀과 適應과의 相關關係(男學生)	41
〈表Ⅳ-15〉	卒業 後 計劃, 未來觀과 適應과의 相關關係(女學生)	42
〈表Ⅳ-16〉	適應下位要因이 卒業 後 計劃에 미치는 影響(男學生)	43

〈表Ⅳ-17〉 適應下位要因이 卒業後計劃에 미치는 影響(女學生) …… 43
〈表Ⅳ-18〉 適應下位要因이 進路選擇決定에 미치는 影響 …… 44
〈表Ⅳ-19〉 進路選擇決定과 適應下位要因과의 關係(適應下集團 男學生) … 45
〈表Ⅳ-20〉 進路選擇決定과 適應下位要因과의 關係(適應下集團 女學生) … 46



圖 目 次

〈圖Ⅱ-1〉	進路決定의 概念 模型	11
〈圖Ⅱ-2〉	Tiedeman 과 O'Hara 의 意思決定過程	12
〈圖Ⅱ-3〉	職業計劃 關聯 要因 및 影響力	14
〈圖Ⅱ-4〉	青少年期의 心理學的 領域	16
〈圖Ⅱ-5〉	適應의 過程	20



I. 緒 論

A.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우리 社會는 急速한 變化를 겪고 있다. 이 변화는 주로 工業化나 都市化에 따른 構造的 變化로 이를 ‘역사의 단축’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이미 混迷할 대로 混迷해진 우리의 價値觀을 더욱 混濁하게 만들어 놓았고,¹⁾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의 생활과 가치관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²⁾

급격한 사회변화는 현대를 사는 청소년을 刺戟하고 있는 바, 청소년이 갖고 있는 심리적 행동상의 특성은 이러한 자극에 相乘的으로 작용함으로써 사회 변화에 대한 청소년의 갖가지 反應과 行動을 사회에 表出시키고 있다. 또한 이런 반응과 존재 양태 등은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그러한 問題性向은 날이 갈수록 深化되고 可速化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³⁾

청소년 범죄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음은 이를 端的으로 말해 주고 있으며, 근로청소년보다 학생과 졸업후 무직인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은 학교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을 뜻하고 있다.⁴⁾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그 나름의 발달적인 특징과 사회적인 要請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자기와 자기 장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理想的인 自我에 接近하려고 努力하고 있으나 많은 障礙와 適應上의 문제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⁵⁾

1) 韓完相, 「現代 젊은이의 挫折과 熱望」 (서울: 培英社, 1982), p.1.

2) 權宗複, “青少年을 爲한 教育政策” 「文教行政」 통권 제 29 호 (1984.5), p.14.

3) 青少年對策委員會, 「青少年白書」 (서울: 文教部, 1983), p.4.

4) “우발 범행 가능성 높다.” 「東亞日報」, 1988.2.6, p.4.

5) 黃應淵, 尹熙峻, 「現代生活指導論」 (서울: 教育出版社, 1974), pp.219~220.

특히 고교시절은 成人期를 향한 準備와 跳躍의 시기이며 知的·情意的·身體的·社會的으로 賦與된 발달과업을 조화롭고 원만하게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전 영역에 걸친 均衡있는 적응이 요청되는데, 각 생활영역의 적응과정에서 학업 성적의 문제가 두드러지는 경향은 入試爲主, 學習指導爲主의 학교 교육이 빚어낸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⁶⁾

중·고등학교 학생수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진학·비진학 학생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재수생의 문제는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증가된 청소년층의 장래 문제는 더이상 放置할 수 없게 됨으로써 그들의 앞날을 위한 定置 및 追隨指導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進路의 選擇과 決定을 적극 격려하고 이를 학습시키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회가 急激히 변화·발달하고 있는 가운데 분업이 가속화되고 선택의 여지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학교 교육목표의 設定이나 학습경험의 선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계획과 장래 직업의 선택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개인에게 합당한 자리를 찾아서 적응해 나가도록 돕는 것이 학교의 중요 임무가 될 것이다. 즉, 사회가 발달할수록 개인의 능력과 흥미에 맞는 분야를 찾아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하는 일이 어려워지므로 학교는 이를 위해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⁷⁾

청년기야말로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가장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때이므로 적응문제와 함께 상급학교의 선택, 진학 그리고 취업을 위한 定置活動이 생활지도 프로그램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까닭이라 하겠다.⁸⁾

우리 나라에서 1970년대부터 대두되기 시작한 進路教育은 변화하는 직업세계

6) 崔順福, 「高校生の 知能·學業成績과 適應에 관한 研究」(淑明女大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5), p. 42.

7) 黃應淵, 尹熙俊, 「前揭書」, p. 208.

8) 黃應淵, 尹熙俊, 「上揭書」, pp. 219 ~ 220.

속에서 자신의 진로를 능동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며,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직업·기술교육을 받게 함에 있다.

즉 사회가 복잡해지고 직업세계도 專門化, 多樣化되고 있어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을 선택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리하여 개인의 성장과 自我實現을 돕고 사회적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진로교육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미래의 인생을 探究, 準備하는 청소년기의 진로선택은 일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사이다.

청소년기는 자기의 존재와 사회적 위치를 확인하면서 자아실현의 바탕을 마련하는 시기로서 이 시기의 進路教育은 직업인으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갖게 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에 있다.⁹⁾

教育改革審議會의 최종보고서¹⁰⁾는 고도 산업사회에 맞는 學制의 定着을 위해 현행의 6-3-3-4 제를 幼-5-3-4-4 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진로준비교육의 不適切, 産業構造의 變化에 대한 適應性의 不足, 개인의 능력차를 고려하지 못하고 평생교육체제에 적합치 않은 현행 학제의 문제점에 터한 것이다.

초·중학교의 교육과정은 계열화되도록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학생의 진로탐색 과정을 강화하며, 고등학교는 4년제로 됨에 따라 진로준비교육, 人性涵養教育 등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編成, 運營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進路選別은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를 고려함은 물론, 고교 2학년 단계에서 적성과 능력을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이뤄지게 하는 것이다.

이론적인 체제도 없이 마구잡이로, 적성이나 능력, 흥미나 인성에 맞지 않은 방향이라도 무조건 취업에 임한다면 직업생활의 적응 문제를 일으켜 不適應과 不滿足 등으로 불행을 招來하며 결국 불만이 사회적 不安要因으로 변하기 쉽다.

9) 洪雄善, 「進路教育資料」(서울: 韓國教育開發院, 1982), p.65.

10) 教育改革審議委員會, 「21세기를 향한 교육」(서울: 教育改革審議委員會, 1987), pp. 24~26.

그러므로, 중·고등학교에서의 進路教育과 諸領域에서의 適應問題는 매우 중요하
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의 진로선택 결정과정을 分析, 把握하고
아울러 이와 관련한 고교생들의 적응실태를 살펴봄으로써 進路選擇, 決定過程에 따
른 적응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고등학교 시절과 나아가서 취업과 진학후에도 올
바르고 건전한 적응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B. 研究의 問題

이상과 같은 研究 目的을 遂行키 위하여 研究하고자 하는 細部的인 研究 問題는
다음과 같다.

1. 진로교육과 진로선택 결정이론에 비추어 본 고교생들의 진로선택 결정과정과
그 경향
2. 進路決定 理由 및 影響要因 分析
3. 進路選擇, 決定過程이 性別, 系列別, 地域別 差異 分析
4. 高校生들의 適應性(학교, 장래, 경제, 가정, 건강, 성격, 여가, 사회, 교우,
이성, 가치도덕)의 診斷
5. 性別, 系列別, 地域別에 따른 고교생의 적응성 차이 분석
6. 進路選擇과 適應性과의 關係 究明
7. 進路分野, 進路變更回數, 적응성과의 관계 분석

이상과 같은 연구문제를 토대로하여 고교생들의 진로선택·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경향성을 파악·분석하고 이와 관련
하여 학생들이 학교, 사회, 가정생활에서 부딪치고 있는 적응의 문제를 결부시켜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C. 研究의 制限點

1. 本 研究의 對象은 濟州道內 高等學校 各 系列別 일정 수의 남녀를 標集하였으나 고르지 못하였으며, 商業系 男子가 選定되지 못하였다.
2. 標集對象은 高等學校 2學年으로 限定하였다.
3. 高교생들의 적응성 진단을 위한 자료수집은 적응성 진단 표준화검사 결과와 학급 담임교사의 참고자료를 토대로 하여야 하겠으나, 담임교사의 참고자료를 본 연구에서는 반영치 못하였다.
4. 학생들의 의사결정과정을 면접법에 의해 상세히 파악해야 했으나 편의상 질문지 방법에 의존 그 결과를 처리하였다.



Ⅱ. 理論的 背景

A. 進路教育和 目的

1. 進路教育의 定義

進路教育은 1970年代 가장 활발했던 教育改革 運動이다.¹¹⁾ 進路教育은 個人의 進路選擇 및 適應 發達에 焦點을 둔 教育的 作用으로서, 우리 나라에 처음 導入될 때 진로교육에 대한 의미는 認識하는 사람에 따라 生涯教育, 經歷教育, 出世教育, 職業教育, 平生教育, 進路開發教育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어 왔으나, 1980년대 초반 이후부터 ‘進路教育’으로 定着되었다.¹²⁾

여러 학자들의 定義를 살펴보면,¹³⁾ Norman Stanger는 ‘평생의 일의 경험 속에서 個人을 動機化하고 훈련시키고 협의하며 증진시킬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모든 교육적인 노력으로 구성된다’라 하여 그 개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定義하고 있으며, Keith Goldhammer는 ‘개인이 참여하고 공헌하며 전인적인 인간이 되도록 돕는 모든 교육의 道具價値를 강조하는 교육적 접근’이라 하였으며, Larry J. Bailey & Ronald Stadt는 ‘개인이 만족스럽고 생산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세우고 선택하며,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선택한 진로에 들어가 지속적인 발달을 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제공되는 일체의 경험,’ R.E. Taylor는 ‘학생들의 삶에 대해 적절한 결정을 내리고 그들의 役割을 遂行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돕기 위한 체계적이고 統合的인 교육과정’이라 定義하고 있다.

11) Halstead Robert, "Career Education" *Critical Issues in Educational Policy* (Boston: Allyn and Bacon, 1980), pp.307~308.

12) 金忠起, "進路教育의 意味와 必要性" 『首都教育』, 제97호(1986.11), p.21.

13) 金忠起, 「進路教育和 進路指導」 (서울: 培英社, 1986), pp.3~4.

Kenneth B.Hoyt¹⁴⁾는 ‘삶의 한 방식으로 일 에 종사하기 위한 준비와 학습을 통한 경험의 총체’라 정의하였다.

進路教育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개관하여 볼 때, 자신의 진로선택, 선택한 진로에서 지속적인 발달을 돕는 과정 등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진로교육의 대상은 전체학생을 포함하며, 그 실시의 주안점은 개인의 인생을 행복하고 만족하게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자질과 적성 그리고 능력을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인생을 설계하여 생의 방향을 결정지어주는 직업을 선정하게 된다. 이러한 직업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維持하고 생활의 기쁨과 보람을 찾으며 나아가 자기의 存在와 사회적 位置를 확인하면서 사회의 一翼을 분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의 선정이야말로 한평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決斷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가능성을 探索, 發見하고 이를 충분히 계발시켜 학생이 원하는 직업을 선정할 수 있게 해주고 의미있는 행복한 삶을 준비하게 하는 진로교육은 학교 교육의 核心이라 할 수 있다.¹⁵⁾

2. 進路教育의 目的

인간은 저마다 자기의 理想에 맞는 직업을 찾으려고 하고 또한 그 직업생활을 통해 경제적 안정은 물론 한 인생의 의미와 自我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장차의 진로를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한 개인의 사회적 존재로서의 의미와 행복에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진로선택의 과정은 인간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意思決定의 하나이다.¹⁶⁾ 왜냐하면, 개인이 어떤 진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는 目的과 方法

14) Calhoun C.C. & Finch A.V., *Vocational Education: Concepts and Operations* (California: Wadsworth Pub. Co., 1982), p.89.

15) 鄭榮九, 「人文系 高校生의 進路指導에 관한 研究」(碩士學位論文, 慶熙大 教育大學院, 1984), p.32.

16) 黃應淵, “進路指導의 位置와 重要性” 「文教行政」 제9호(1983.7), p.24.

이 결정되고 만다는 사실과, 사귀는 친구들이 달라지며 그의 價値觀과 態度까지 변화되기 때문이다.¹⁷⁾

진로교육의 充實化는 개개인의 직업에 대하여 사명감과 애착심을 갖고 急變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며, 국가에 필요한 인력이 適材適所에 배치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데 있다.¹⁸⁾

進路教育은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교육활동이라고 볼 때,¹⁹⁾ 發達段階에 따른 여러 學者들의 職業發達段階를 살펴 본다.²⁰⁾

〈표 II - 1〉 직업 발달 단계

학자	Donald E. Super	Eli Ginzberg	David V. Tiedeman	Bruce W. Tuckman
발달 단계	(1) 성장기 (출생~14세)	(1) 환상적 단계 (11세 이전)	(1) 예상기 ① 탐색	1 단계 (유~1학년) 일방적 의존성
	(2) 탐색기 (15~24세)	(2) 시험적 단계 (11~17세)	② 구체화 ③ 선택	2 단계 (1~2학년) 자아의 주장
	(3) 확립기 (25~44세)	(3) 현실단계 (18세~성인)	④ 명료화	3 단계 (2~3학년) 조건적 의존성
	(4) 유지기 (45~64세)		(2) 실천기 ① 순응 ② 개혁 ③ 통합	4 단계 (4학년) 독립성
	(5) 쇠퇴기 (65세~)			5 단계 (5~6학년) 외부적 지원
				6 단계 (7~8학년) 자기결정
				7 단계 (9~10학년) 상호관계
				8 단계 (11~12학년) 자율성

17) 金元中, 「진로의식 성숙과 사회심리적 요인과의 관계」 (碩士學位論文, 서울대학교 大學院, 1984), p.1.

18) 朴 垸,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지도에 관한 조사연구」 (碩士學位論文, 慶尙大 教育大學院, 1985), p.15.

19) 洪雄善, 「前揭書」, p.65.

20) 金忠起, 「前揭書」, pp.47~55.

이상 여러 학자들의 이론에 근거할 때 고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의 目標은 다음과 같다.²¹⁾

첫째, 자신의 적성 및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樹立하며,
둘째, 진학 또는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넓게 수집 분석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 및 학교를 선정하고 이를 위해 준비하며,

셋째, 건전한 직업관 및 직업윤리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수준은 진로를 결정하여 그에 필요한 준비 (Career preparation) 를 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²²⁾

李定根²³⁾은 고등학교에서의 進路指導 目的을 다음과 같이 要約하고 있다.

첫째, 進路目的을 보다 具體的으로 수립할 필요성을 認識토록 한다.

둘째, 자신의 진로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셋째, 意思決定 能力과 문제해결 能力을 더욱 伸張하고 이러한 能力을 진로계획 수립에 활용하도록 한다.

넷째, 일을 하는데 있어서의 集團行動의 力動性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다섯째, 졸업 후에 자기가 처할 환경에 대비하도록 한다. 취업할 학생에게는 適切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논의에서 진로교육의 目的은 졸업 후에 자기가 택한 길을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미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러한 계획을 實踐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데 있다.

21) 洪雄善, 「前揭書」, pp.14~15.

22) 黃應淵, 「前揭書」, p.25.

23) 李定根, 「進路指導와 進路相談」 (서울: 中央適性研究所, 1984), p.129.

B. 進路選擇決定의 模型과 過程

1. 進路選擇決定의 概念

進路決定은 어느 한 단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체계적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理論들은 한 인간이 생애 발달과정을 통하여 유목적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進路意識發達理論의 측면, 진로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개인으로 하여금 進路認識, 探索 및 決定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학습시켜 주어야 한다는 進路學習理論의 측면, 개인의 진로 결정에 작용하는 제반 요인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合理的으로 진로를 결정하게 한다는 진로선택 및 결정이론의 측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²⁴⁾

進路選擇에 관한 개념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은 그 見解를 달리하고 있다.²⁵⁾

E.C.Glanz 는 ‘개인이 직업세계의 현실성과 자신의 직업준비와 목적 사이에 최적의 적절성을 추구하기 위한 의사결정의 장기적 과정’이라 하였고, Tiedeman 과 O'Hara 는 ‘개인의 인성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일과 동일시함으로써 조직되어지는 과정’이라 보았으며, Ginzberg 는 ‘흥미, 능력, 가치와 기회 사이의 妥協의 수단’으로, Kuder 는 ‘흥미를 확인하고 발전시키는 意思決定의 手段’, Hoppock 는 ‘基本的 欲求를 충족시키는 수단’, Holland 는 ‘개인이 가지고 태어난 遺傳的 소질이 여러 가지 문화적·개인적인 힘과 서로 이루어진 산물로서 그의 적응방향의 체계를 만족시키는 장을 구하는 것’이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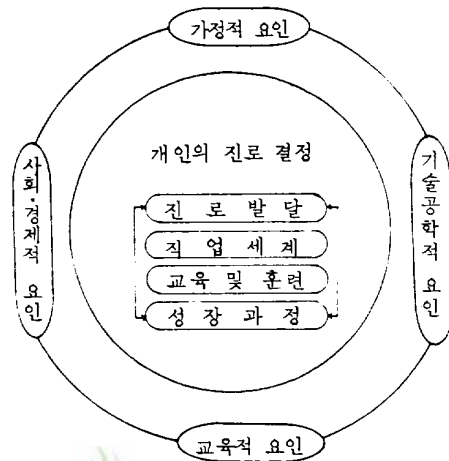
이상에서 進路選擇決定에 관한 공통점은 자기만족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綜合해 본다면, 進路選擇이란 “個人的 欲求를 充足시키기 위하여 理

24) 강무섭, 박영숙, 「학생의 진로결정과정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4), pp.19~27.

25) 許鐵株, “高校生の 進路選擇과 決定의 合理的 方案에 관한 研究,” 濟州大學生生活研究所, 「學生生活研究」 제8집, (1986), pp.35~36.

想的인 水準을 현실에 맞추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個人의 進路決定은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동태적인 의사결정이다. 오늘날과 같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 경제와 그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 새로이 개발되는 기술 등의 조건으로 인하여 개인의 진로는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의 개념 모형을 강무섭, 박영숙(1984)은 <圖Ⅱ-1> 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²⁶⁾



<圖Ⅱ-1>

진로 결정의 개념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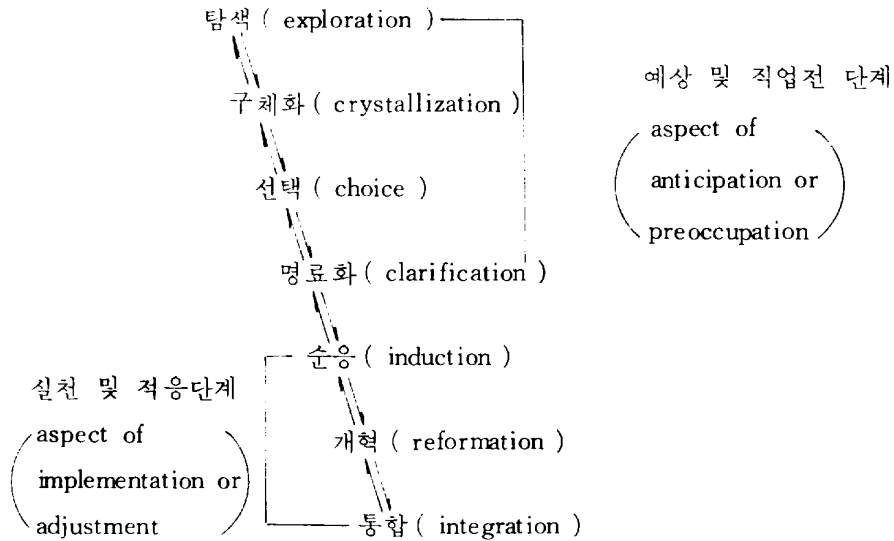
2. 進路選擇決定過程

個人의 진로선택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1회적이거나 單一決定이 아니다. 즉 繼續的 意思決定의 개념으로서 각 단계의 결정은 그 다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Tiedeman과 O'Hara는 진로의 선택을 의사결정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意思決定過程은 개인이 어떤 문제에 直面하여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느낄 때에야 비

26) 강무섭·박영숙, 「前掲書」, pp.27~28.

로소 시작된다고 했고²⁷⁾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²⁸⁾



〈圖 II - 2〉 Tiedeman 과 O'Hara 의 意思決定過程

Ginzberg 는 妥協을 선택의 本質的 側面으로 보아 현실여건, 자신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고려치 않고, 독단적으로 특정직업을 택해서 그 직업에서 하는 일을 놀이 활동을 통해서 표출하려는 幻想的 段階, 외적 요인을 意識하게 되며 장래 직업을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試驗的 選擇段階,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 기회 등 뿐만 아니라 환경적 제한 조건을 고려하고 타협해서 결정에 도달하게 되는 現實段階로 區分하였다.²⁹⁾

한편, Ginzberg 의 理論을 보완한 Super 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주요 인물과 동일시함으로써 발전되는 成長期를 거쳐, 학교생활, 여가활동, 시간제 일을 통해

27) 李定根, 「前掲書」, p.55.

28) 許鐵株, 「前掲書」, pp.39~41.

29) 李定根, 「上掲書」, pp.46~47.

자아검증, 역할 수행, 직업적 탐색을 시도하는 探索期,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를 발견하고 생활의 터전을 영구적인 위치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確立期, 직업세계에 확고한 위치가 설정되어서 그것을 유지하는 維持期, 정신적, 육체적 힘이 약해짐에 따라 새로운 役割과 活動을 찾는 衰退期 등으로 그의 職業發達理論을 展開해 나갔다.³⁰⁾

3. 進路選擇決定要因

진로를 최종 선택하는 意思決定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진로의 선택결정은 개인의 人格의 表層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深層 내지는 全面에서 관여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정 요인을 分析하는 側面도 학자에 따라 매우 다양한 견해들을 밝히고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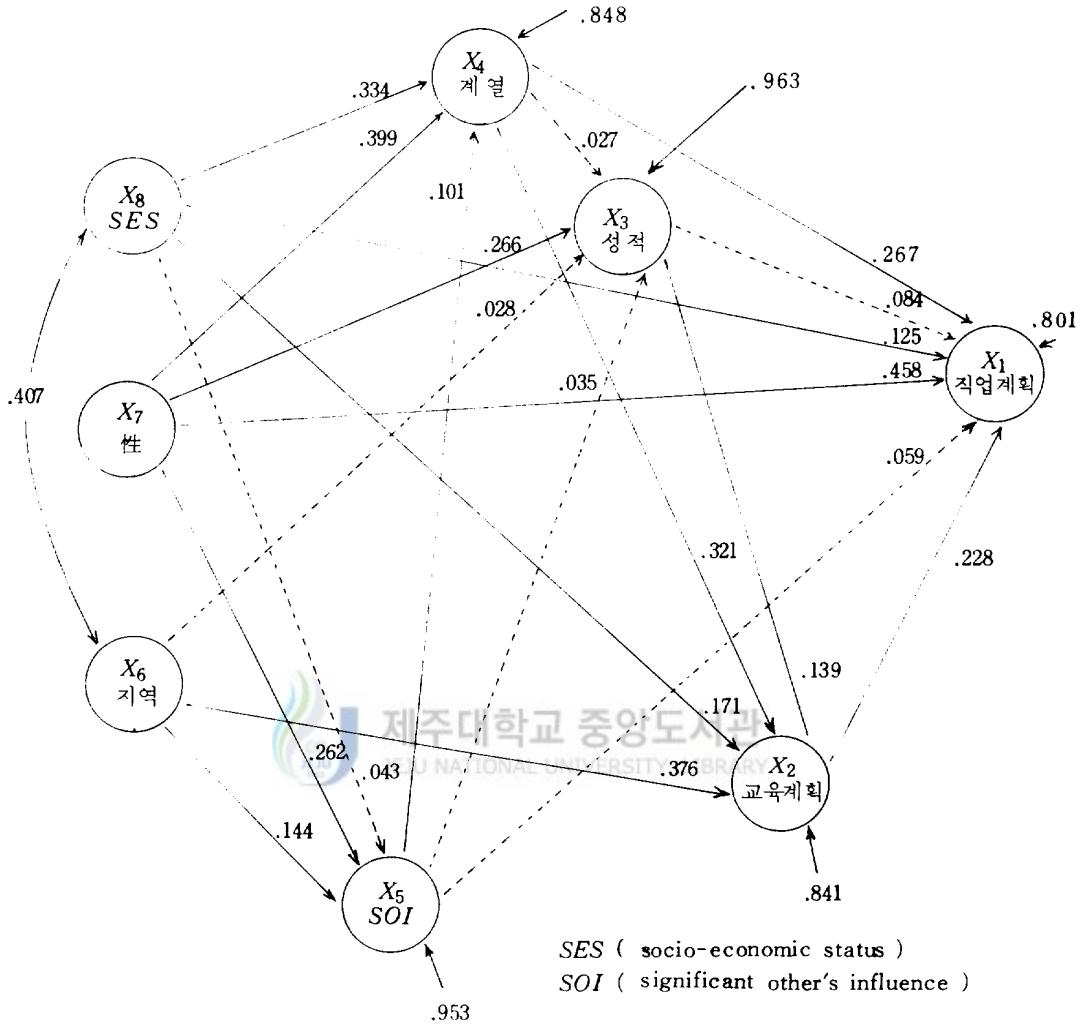
〈 표 II - 2 〉 진로선택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학 자	요 인
Tolbert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구분 (직업명성, 직업흥미, 가정, 경제, 성격, 신체, 정신, 사회적 장애 등)
Herr	일반적요인-사회계층, 인종, 문화, 나이, 성 특수요인-적성, 지능, 직업흥미, 가치, 욕구, 자아개념 등
Bailey & Stadt	개인 사회적 요소 - 가족, 사회계층, 지역, 종족, 성, 나이 심리적 요소 - 흥미, 정신능력, 가치
Roe, Ginzberg	개인의 욕구, 사회경제적 수준, 지능수준
Blau & Gustad	心理的 要因 - 態度, 興味, 人性, 氣質 등
Isaacson	身體的 要因 社會的 要因
Gate	포부수준

30) 金忠起, 「進路教育과 進路指導」 (서울: 培英社, 1986), pp.49~50.

31) 許鐵洙, 「前掲書」, pp.41~44의 내용을 要約하여 提示함.

한편 曹文鉉은 高等學校 卒業班 學生들의 進路計劃 設定過程과 그 주요 要因들이 상호 작용하는 因果模型을 제시하고 있다.³²⁾



〈圖 II - 3〉 직업계획 관련 요인 및 영향력

32) 曹文鉉, 「韓國高等學生의 進路計劃 設定過程에 관한 研究」 (서울: 韓國教育開發院, 1982), p. 61.

이렇듯 進路選擇決定에 영향을 주는 要因들은 多樣하며 相互 連關的이고 複合的으로 作用된다고 할 수 있다.

강무섭, 박영숙은 이들을 크게 셋으로 區分하여 綜合하고 있다.

〈표 II - 3〉 진로 결정 요인

구 분	결 정 요 인
개인적인 차원	1. 내재적 요인 연령·성·능력·인성·직업적 흥미, 학력, 신체적 조건 등 2. 외재적 요인 - 가정배경 부모의 직업, 학력,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구성, 종교 등
사회·경제적인 차원	1. 산업구조의 변화 2. 산업기술의 혁신요인 3. 인구 증가 요인 4. 사회의 직업 가치관
교육체제적인 차원	1. 학교 배경 2. 교육 정책

資料源: 강무섭외 1인, 「학생의 진로결정과정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4), p.34.

C. 靑少年의 特徵과 適應의 課題

1. 靑少年期の 特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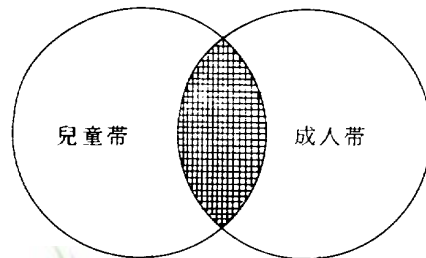
靑少年기의 시대적 구분을 명확히 하기란 어렵지만 대개 發達心理學者들의 綜合的인 견해에 따르면, 靑年초기 (中學校 時節: 13~15 세경), 靑年중기 (高等

學校 時節：16～18 세경), 청년 후기(大學校 時節：19～22 세경)로 區分하고 있다.³³⁾

최근 産業構造의 개편과 더불어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청소년 인구가 증대되고 청소년층이 두터워지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볼 때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³⁴⁾

심리학자인 Kurt Lewin은 청소년기는 실로 無人地帶(no-man's land)라고 주장하였다. 즉 청소년기는 아동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지만 중복되는 力場이나 期待域에 포함된다고 하였다.³⁵⁾

이를 <圖 II -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圖 II - 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UNIVERSITY LIBRARY
青少年期の心理學的領域

資料源：Glenn M. Blair & R. Stewart Jones, 「青年心理學」, 金仁植(譯), (서울：培英社, 1982), p.17.

청소년은 심리학적으로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적인 위치에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기존의 사회구조에 편입되지 못하는 주변적 성격을 띠고 主體

33) 金忠起, “青少年的 職業觀,” 「私學」, 봄호(1987), p.44.

34) 金仁植(譯), 「青年心理學」(서울：培英社, 1982), pp.17～18.

35) 崔順福, 「高校生の 知能·學業成就와 適應關係 研究」(碩士學位論文, 淑大 教育大學院, 1985), p.1

性 대 役割混迷의 時期를 맞게 되어 身體的·社會的·心理的 不適應을 겪게 된다.

청소년의 社會·心理的 특징을 要約하면³⁶⁾

- ① 理想과 現實, 獨立과 依存, 性的 完熟과 不滿 사이의 갈등
- ② 傳統的인 規範과 秩序에 대한 반발
- ③ 기대 수준 상승
- ④ 소비성 쾌락주의 추구
- ⑤ 질풍노도와 같은 정서적 변화
- ⑥ 가정과 사회에서의 부적응
- ⑦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 ⑧ 극단적인 비판과 낙관
- ⑨ 자기 주체성의 추구, 도덕관, 인생관 확립 등이라 할 수 있다.

現代社會에 있어서 急激한 變遷과 多樣化는 가치갈등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발달단계로 보아 자기 내부적인 변화를 가장 크게 겪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이러한 현대사회가 提示하는 價値選擇의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도영역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³⁷⁾

그러므로 인간의 성장 발달단계에서 청소년기는 적응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시기라 할 수 있다.

2. 靑少年들의 適應課題

高校生들은 그들 특유의 발달단계로 보아 어느 시기보다도 많은 課題와 問題에 직면하고 있다. 心理的으로 社會的으로 불안정과 불균형이 심한 긴장의 연속이며,

36) 金南星, 「教育心理學」(서울: 教育科學社, 1984), pp.83~84.

權宗復, 「前揭書」, p.15.

金忠起, 「前揭書」, p.45.

朴孝燮, 「고교생의 욕구경향과 적응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碩士學位論文, 忠北大教育大學院, 1982), pp.1~2.

37) 閔榮順, 「教育心理學新講」(서울: 文音社, 1982), p.388.

不安과 葛藤의 經驗이 漸高되는 時期이다.³⁸⁾ 뿐만 아니라 周邊의 性格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社會的 獨立, 異性과의 自由로운 交際, 責任있는 自律的인 役割遂行, 經濟的 自立 등을 추구하며, 스스로의 生活目標, 自我正體感 發見을 위하여 盡力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過度期的 性格 등으로 인하여 挫折을 맛보기 쉽다.³⁹⁾ 그러므로 學校에서는 이러한 모든 課題와 問題를 教育的으로 지도하여 學生들의 知的·情意的·社會的 發達을 최대로 촉진시켜 주어야 한다.

吳榮煥은 그의 연구 '中·高校 學生問題의 分析'에서 高校生들의 學生問題 實態를 보면, 進學問題(31.4%), 學業問題(31.4%), 졸업후 취직문제(18.7%), 性格과 行動問題(5.1%), 交友問題(4.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學生들이 자신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는가를 밝힌 것을 보면, 40%의 學生들이 자신의 문제를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혹은 해결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지니고 있어 주변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指導와 助言이 절실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靑少年白書에 의하면,⁴⁰⁾ 靑소년들이 당면하는 가장 큰 고민거리 세 가지 선택에서 학업문제(73%), 진학 및 장래문제(68%), 자신의 성격(36%)에 관한 고민 등이 지적되었다.

李載昌等⁴¹⁾의 研究에 의하면 靑少年들이 苦悶하는 문제는 학업성적(37.4%), 진학·진로(23.9%), 건강(9.2%), 용모체격(7.5%), 가정불화(6.6%), 가정빈곤(3.9%), 이성교제 및 친구관계(각 3.4%), 성격(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韓國行動科學研究所⁴²⁾의 연구에 의하면 고교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공부문제

38) 吳榮煥, 「中·高校 學生問題의 分析」(서울: 韓國行動科學研究所, 1979), p.4.

39) 李載昌外 4人, 「靑少年問題 綜合診斷 研究」(서울: 韓國教育開發院, 1981), p.15.

40) 靑少年對策委員會(編), 「靑少年白書」(서울: 國務總理行政調整室, 1986), p.74.

41) 李載昌外 4人, 「上揭書」, p.104.

42) 韓國行動科學研究所, 「한국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서울: 行動科學研究所, 1981), p.1을 賈龍鉉,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에 대한 의식과 태도에 관한 조사 연구」 p.18에서 재인용.

(37.2%), 진로문제 (35.8%)이며, 1,2 학년은 공부문제 (50%)가, 3 학년은 진로문제 (59.1%)가 각각 두드러지게 나타났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상의 研究들에서 조사 항목이 다르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날 청소년들이 당면하는 문제는 學業, 進路, 健康, 家庭, 交友, 性格 等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 때 靑少年들은 欲求不滿에 빠지기 쉽다. 욕구불만으로 시작된 不適應 狀態에 빠지면, 아무리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가능성의 실현에는 심한 제한을 받는다.⁴³⁾

욕구불만은 학습부진의 원인이며 노이로제나 정신병의 원인이 된다고 보며, 사회병리적 행동 즉 비행이나 범죄도 욕구의 좌절이 빚어낸 결과라고 보는 견해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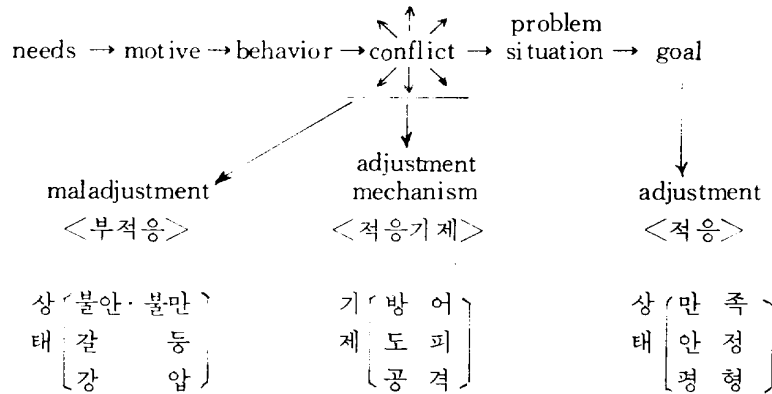
부적응은 葛藤이 심할 때, 긴장의 원인에 대한 洞察이 없을 때, 또는 환경이 急變하여 적절한 적응의 형식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 일어나며,⁴⁴⁾ 이에 관한 청소년의 문제는 단순한 청소년의 보호·육성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신 건강에도 관계가 있으므로 다각적인 해결방안이 요구되어야 한다.

한 개인의 계속적인 부적응은 개인의 성격 형성에도 영향을 주어 異狀性格者를 만들 수도 있으므로 각급 학교에서는 소수의 부적응 학생의 발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適應과 不適應 關係를 綜合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3) 金良賢, “新入生을 위한 適應指導方案” 「首都教育」 제 87 호 (1985.3), p.11.

44) 岡榮順, 「前掲書」, p.373.



〈圖 II - 5〉 適應의 過程

資料源：張大雲，“現代教育心理學” 서울：正民社，1985，p.241.

D. 進路選擇決定과 適應과의 關係

靑少年들은 性的 役割과 正體感의 혼란에서 不安을 느끼며, 人生의 目標樹立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데 이들 중에서 進路問題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高校生의 進路指導는 필수적이며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進路指導에서 人性的 資質을 고려하는 까닭은 다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⁴⁵⁾

첫째, 人性的으로 不適應 狀態에 빠져있으면 어떤 직업이나 혹은 어떤 직업을 위한 준비과정에 잘 적응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적응 상태의 유무를 가려내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 專門的인 조력을 가하여 그와 같은 부적응 상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둘째, 어떤 직업에 있어서 부적응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45) 李榮德·鄭元植, 「生活指導의 原理와 實際」 (서울: 敎學圖書株式會社, 1971), p.196.

같은 부적응 상태를 최소한으로 감소할 수 있는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職業指導에서 人性的인 資質을 고려하는 것은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개인은 환경에 적응할 때 즐겨 사용하는 습관적인 방식, 즉 적응방향 (adjustive orientation)을 형성하게 되고 직업을 선택하게 될 때는 바로 자신의 適應方向을 滿足시켜 줄 수 있는 職業環境을 選擇하게 된다.⁴⁶⁾

J.L.Holland에 의하면 주어진 직업환경과 적응방향을 6개의 範疇 즉, 현실적, 지적, 사회적, 전통적, 기업적, 예술적인 것으로 區分하였다.⁴⁷⁾ 여기서 자신의 적응방향에 적합한 職業環境을 택하게 되면 그것이 보다 安定된 선택이 될 수 있으며 보다 높은 직업적 성취, 보다 나은 정서적 안전성의 유지, 보다 큰 만족, 보다 높은 지적 성취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⁴⁸⁾ Crites는 직업선택은 각 개인의 장래 직업적응에 따라 직업선택에 대한 기준이 달라진다고 보았다.⁴⁹⁾ 朴孝燮은 인문계 학생은 대학진학, 상업계 학생은 취업이라는 상반된 진로형태에서 육구의 경향은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⁵⁰⁾

이렇듯 進路와 適應과는 관련이 있다 하겠는데 이를 여러 가지의 적응하위 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본다.⁵¹⁾

1. 進路와 經濟

경제문제는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사람들이 어떠한 수준의 생활을 하고, 어떠한 교육을 받고, 어떠한 여가생활을 하느냐 등 많은 부분이 경제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어떤 학생이 대학진학 혹

46) 강무섭·박영숙, 「前掲書」, p.25.

47) Gati Itamar, "Testing Models for the Structure of Vocational Interes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21, No.2, (1982), pp.164~165.

48) 李定根, 「前掲書」, pp.266~267.

49) 이명자, "進路指導" 慶北大學校 「學生指導研究」 제 14 권 제 1 호, (1981), p.53.

50) 朴孝燮, "前掲論文," p.2.

51) 한국교육개발원, 「나의 뜻, 나의 길」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6), pp.278~338.

은 취업, 취업 후 대학진학 등 각기 다른 진로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 적성, 흥미 등의 요인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가정의 경제적인 요인이 크다 하겠다.

2. 進路와 社會

사람들의 생각이나 行動은 사회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거나 나타난다. 이러한 생각이나 행동은 사회나 주변사람의 期待, 가치, 습관, 규율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인 영향은 매우 다양하며 바람직한 영향 혹은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 등 모두 사람들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3. 진로와 家庭

가정적 요인은 사람들의 진로결정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부모의 직업, 가치관, 자녀에 대한 기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문화, 형제들의 직업 및 가치관, 형제간의 기대, 거주지 등 가정과 관련된 많은 요인들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진로선택 및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정은 사람들이 성장하고 생활의 터전이 되는 만큼 사람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4. 진로와 동료

동료는 일생을 통하여 가장 소중하며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는 사람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가정보다 더 클 수도 있다. 특히 또래의 연령에서 동료가 미치는 영향은 일생을 통하여 가장 클 시기이다.

5. 진로와 가치

사람들은 각자의 가치관에 의해 좋음과 싫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장래진로문제는 개인의 가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즉, 개인의 가치에 반대가 되거나 잘 맞지 않는 진로를 택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 삶은 충족감이나 만족 대신에 挫折과 불만을 느끼게 되므로 보다 건전한 가치관을



키워감과 동시에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6. 진로와 여가

진로는 여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여가 역시 진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람들의 계획은 진로와 여가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 만족스런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만족스런 여가를 가져야 하며 원하는 여가의 양과 종류를 알맞게 계획하고 설계해야 더 나은 진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인은 여가와 일을 포함하기 위한 진로를 계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위해 필요한 시간과 돈을 얻기 위해 진로를 계획할 수도 있다.

청년기에 들어서고 있는 고교생의 보다 나은 적응지도는 그들의 진로 내지 교육적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Ⅲ. 研究 方 法

A. 研究對象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濟州道內 高等學校 2學年이며 地域別, 性別, 系列別 등을 고려하여 標集되었다. 회수된 질문지 460 매 중 413 매를 연구대상으로 삼았으며 그 내용은 <表Ⅲ-1>과 같다.

<表Ⅲ-1> 연구대상자의 집단별 분포

성 별		지 역 별		계 열 별		계
남	여	도 시	읍	인 문	실 업	
201	212	183	230	185	228	413

B. 測定道具



本 研究에서 사용된 道具는 進路選擇決定을 묻는 質問紙와 학생들의 生活 또는 行動樣態가 그들의 環境에 正常的으로 적응되어 가고 있으며 정신적 건강상태가 만족스럽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이상로·변창진이 엮은 標準化適應診斷檢査이다.

1. 進路選擇決定에 관한 質問紙

진로선택결정에 관한 질문지는 학생들의 장래직업선택분야, 대학 진학시 희망 계열, 개인의 성장과정을 통한 진로의 변경, 진로선택 결정시 영향을 주는 요인, 개인의 미래관 등을 조사키 위하여 작성되었으며, 특히 대학 학과 계열과 직업 선

택 분야는 金在恩이 엮은 進路適性診斷檢査紙⁵²⁾를 참고하였다.

2. 標準化適應診斷檢査

이상로·변창진이 공동 제작한 標準化適應診斷檢査는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제 1부는 11개 하위 영역별(학교, 장래, 경제, 가정, 건강, 성격, 여가, 사회, 교우, 이성, 가치도덕 등) 적응의 정도를, 그리고 제 2부에서는 適應機制를 알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학생 개인 또는 집단의 문제행동 즉 심적긴장, 불만, 번뇌, 고뇌, 좌절감 등의 소재와 그 성질을 밝히기 위해서 만들어진 본 표준화 검사는 受檢者의 受檢態度, 眞實性을 確認하기 위한 信賴性檢査(Lie-Scale)을 包含시킴으로써 결과 해석의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製作되었다.

C. 實施方法

本 檢査는 1988년 7월 1일부터 20일까지 두 가지 검사가 동시에 실시되었는데 표준화적응진단검사가 50분, 진로선택결정에 관한 질문지가 10분 등 모두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검사 후 즉각 회수되었으므로 모두 探點 대상으로 삼았지만 표준화적응진단검사에서 信賴度(Lie-Scale)가 낮게 나오는 것과 불성실하게 답한 것은 研究對象에서 제외시켰다.

D. 資料의 處理

本 研究를 遂行키 위해 다음과 같이 자료처리 하였다.

52) 金在恩, 「進路適性診斷檢査紙」(서울:韓國心理適性研究所, 1986), pp.7~8.

1. 표준화적응진단검사에서 나온 점수들은 평상시 느끼는 각 영역별에서의 문제점의 갯수인데 이를 %로 환산하여 적응의 정도별 상집단(25% 이하; 적응상 문제가 없는 집단), 중집단(25~75%; 정상적인 집단), 하집단(75% 이상; 적응에 심각한 문제나 고민을 갖고있는 欲求不滿인 집단) 등 3개 집단으로 나누어서 이와 진로선택결정과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2. 수집된 자료는 제주대학교 전자계산소에서 SPSS를 이용 처리하였다.

3. 本 研究에 適用된 統計的 方法은 단순빈도조사를 비롯한 t-test, χ^2 檢證, 重多回歸分析, 積率相關關係, 類關係數 등이 사용되었다.



IV . 結果 및 解釋

A. 高校生の 進路選擇決定

本 研究의 대상인 고등학교 2 학년 학생들의 진로선택경향을 졸업후 진로선택 분야, 진로 결정시기, 진로의 변경, 진로선택 결정이유, 진로선택시 영향요인 등을 중심으로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 IV-1 〉 졸업후의 계획

()안은 %

구	분	전 체 사 례 수	진학 희망	취업 희망	검 증 치	C
성	남	201	120 (59.7)	81 (40.3)	$x^2 = 0.02$ $df = 1$ N.S.	.
	여	212	125 (59.0)	87 (41.0)		
지	도시	81	68 (84.0)	13 (16.0)	$x^2 = 33.16$ $df = 1$ $P < .01$.38
	농촌	120	52 (43.3)	68 (56.7)		
역	도시	102	74 (72.5)	28 (27.5)	$x^2 = 14.99$ $df = 1$ $P < .01$.26
	농촌	110	51 (46.4)	59 (53.6)		
계	인문	100	96 (96.0)	4 (4.0)	$x^2 = 108.99$ $df = 1$ $P < .01$.59
	실업	101	24 (23.8)	77 (76.2)		
열	인문	85	78 (91.8)	7 (8.2)	$x^2 = 63.10$ $df = 1$ $P < .01$.48
	실업	127	47 (37.0)	80 (63.0)		

C : 類關係數

〈 표 IV-1 〉은 고교생들의 졸업 후 계획을 각 분류 집단별로 제시된 표이다.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남녀간 진학희망자와 취업희망자의 비율은 차이가 없으나 지

역별, 계열별에서는 그 차이가 심하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별에서 도시 남자의 경우 진학희망 84.0%, 취업희망 16.0%이며, 농촌 남자의 경우 진학희망 43.3%, 취업희망 56.7%로 나타났다. 이는 $P = .01$ 수준에서 相關이 있으며 이의 相關係數는 .38로 나타났다. 도시여자의 경우 진학희망 72.5%, 취업희망 27.5%이며, 농촌여자의 경우 진학희망 46.4%, 취업희망 53.6%이다. 이는 $P = .01$ 수준에서 相關이 있으며 이의 유관계수는 .26이다.

한편 계열간 졸업 후 계획을 보면 학교 특성상 인문계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많이 하려는 것은 물론 실업계 학생들도 상당수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 특히 실업계 학생들의 대학진학희망은 남학생 23.8%, 여학생 37.0%로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희망하고 있다.

고교생의 진로선택결정 경향을 고교 졸업 후 희망하는 대학진학분야와, 고교 혹은 대학 졸업 후의 사회진출분야를 조사해 봄으로써 그 내용을 파악코자 한다.

〈 표Ⅳ-2 〉 성별에 따른 사회진출선택분야

() 안은 %

성별	인원	분야									
		교육	사무관리	의료	보건위생	공업기술	문화어학	가정영상	예술예능	농수산	무응답
남	201	17 (8.5)	38 (18.9)	7 (3.5)	8 (4.0)	107 (53.2)	8 (4.0)	1 (0.5)	15 (7.5)	0 (0.0)	0 (0.0)
여	212	57 (26.9)	46 (21.7)	20 (9.4)	15 (7.1)	2 (0.9)	35 (16.5)	12 (5.7)	20 (9.4)	1 (0.5)	4 (1.9)

$\chi = 163.72$ $df = 9$ $P < .01$ $C = .53$

〈 표Ⅳ-2 〉는 성별에 따른 사회 진출분야를 나타낸 표로서 남자의 경우 공업기술분야 (53.2%), 사무관리분야 (18.9%), 교육분야 (8.5%) 등의 순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여자의 경우 교육분야 (26.9%), 사무관리분야 (21.7%), 문화어학분야 (16.5%) 등으로 그 선택 경향이 남녀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P < .01$, 유관계수 .53). 이는 賈龍鉉의 연구⁵³⁾와 여자의 경우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53) 賈龍鉉, “人文系 高等學校 學生의 進路에 대한 意識과 態度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仁荷大學校 教育大學院, 1984), p.50.

〈 표Ⅳ-3 〉 性別에 따른 大學進學 選擇分野

() 안은 %

성별	인원	분야											
		문학	사범	법학	경상	이학	의·치·약학	공학	농·수산	가정	예능	특수	무응답
남	201	8 (4.0)	13 (6.5)	1 (0.5)	30 (14.9)	6 (3.0)	11 (5.5)	82 (40.8)	33 (16.4)	4 (2.0)	13 (6.5)	0 (0.0)	0 (0.0)
여	212	30 (14.2)	41 (19.3)	9 (4.2)	15 (7.1)	5 (2.4)	25 (11.8)	0 (0.0)	6 (2.8)	24 (11.3)	41 (19.3)	1 (0.5)	15 (7.1)

$$\chi^2 = 189.53 \quad df = 11 \quad P < .01 \quad C = .56$$

〈 표Ⅳ-3 〉의 대학 진학시 희망 계열에서는 男子의 경우 공학계열 (40.8 %), 농수산계열 (16.4 %), 경상계열 (14.9 %) 등의 순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女子의 경우 사범계열 (19.3 %), 예능계열 (19.3 %), 문학계열 (14.2 %) 등의 순으로 선택하고 있다.

男女間 大學進學 選擇에서 크게 차이나는 것은 문학계열 (남자 4.0%, 여자 14.2 %), 사범계열 (남자 6.5 %, 여자 19.3 %), 예능계열 (남자 6.5 %, 여자 19.3 %) 등 선택분야가 확연하다. 이는 정영구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이다.⁵⁴⁾

이와 같은 사회진출 또는 대학진학 등 진로의 선택결정시기는 〈 표Ⅳ-4 〉에 제시되고 있다.

〈 표Ⅳ-4 〉를 보면 대체적으로 社會進出分野를 대학 진학보다 일찍 결정하고 있어서 대학 계열의 선택보다 직업에 관한 의식 즉, 장래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관한 관심이 크다 하겠다. 대부분이 국민학교 때 최초 결정하고 있으며, 연령에 따라 감소되었다가 다시 그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다.

집단별 진로 결정 최초 시기는 사회진출 및 대학진학에서 性別, 地域別에 따라 관계가 있으나 系列間 진로 결정 최초 시기는 별 차이가 없다.

54) 鄭榮九, 「前掲論文」에서 남자는 인문, 공대, 사회과학, 사범, 법대 순으로, 여자는 사범, 인문, 의대, 사회과학, 예체능 등의 순으로 전공을 선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 표 IV-4 〉 集團別 進路決定 最初時期

() 안은 %

진로 분야	구분	시기	국교	중 1	중 2	중 3	고 1	고 2	무응답	검 증 치	C
사회 진출	성 별	남 N=201	136 (67.7)	8 (4.0)	4 (2.0)	10 (5.0)	13 (6.5)	20 (10.0)	10 (5.0)	$\chi^2 = 22.23$ $df = 6$ $P < .01$.23
		여 N=212	113 (53.3)	11 (5.2)	5 (2.4)	14 (6.6)	6 (2.8)	55 (25.9)	8 (3.8)		
	계열별	인문 N=185	112 (60.5)	5 (2.7)	7 (3.8)	19 (10.3)	16 (8.6)	12 (6.5)	14 (7.6)	$\chi^2 = 63.05$ $df = 6$ $P < .01$.36
		실업 N=228	137 (60.1)	14 (6.1)	2 (0.9)	5 (2.2)	3 (1.3)	63 (27.6)	4 (1.8)		
	지역별	도시 N=183	140 (76.5)	8 (4.4)	2 (1.1)	10 (5.5)	0 (0.0)	6 (3.3)	17 (9.3)	$\chi^2 = 89.73$ $df = 6$ $P < .01$.42
		농촌 N=230	109 (47.4)	11 (4.8)	7 (3.0)	14 (6.1)	19 (8.3)	69 (30.0)	1 (0.4)		
대학 진학	성 별	남 N=201	115 (57.2)	6 (3.0)	3 (1.5)	14 (7.0)	19 (9.5)	19 (9.5)	25 (12.4)	$\chi^2 = 40.72$ $df = 6$ $P < .01$.30
		여 N=212	66 (31.1)	11 (5.2)	5 (2.4)	11 (5.2)	17 (8.0)	59 (27.8)	43 (20.3)		
	계열별	인문 N=185	87 (47.0)	11 (5.9)	5 (2.7)	20 (10.8)	25 (13.5)	20 (10.8)	17 (9.2)	$\chi^2 = 48.24$ $df = 6$ $P < .01$.32
		실업 N=228	94 (41.2)	6 (2.6)	3 (1.3)	5 (2.2)	11 (4.8)	58 (25.4)	51 (22.4)		
	지역별	도시 N=183	99 (54.1)	9 (4.9)	4 (2.2)	12 (6.6)	13 (7.1)	13 (7.1)	33 (18.0)	$\chi^2 = 34.29$ $df = 6$ $P < .01$.28
		농촌 N=230	82 (35.7)	8 (3.5)	4 (1.7)	13 (5.7)	23 (10.0)	65 (28.3)	35 (15.2)		

C = 類關係數

사회 진출 분야에서 都市學生들은 국민학교 (76.5 %), 중 3 (5.5 %) 때 대부분 결정하고 있으며, 農村學生들은 국민학교 (47.4 %), 고 2 (30.0 %) 때 결

정하고 있다. ($P = .01, C = .36$)

대학 진학 분야에서 男學生은 국민학교 때 57.2%가 결정하는 데 반하여 女學生은 국민학교 때 31.1%, 고2 때 27.8% 등 그 결정에 있어서 신중하다 할 수 있으며, 地域別에서 都市學生들은 국민학교 때 54.1%가 결정하는데 農村學生들은 국민학교 때 35.7%, 고2 때 28.3%가 결정하고 있다.

이는 윤희준·이재신이 보고한 개인의 진로결정과 주거지역(도시·농촌) 간 상관성이 있음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⁵⁵⁾

〈표Ⅳ-5〉 성별에 따른 진로변경 횟수

()안은 %

분야	성별	변경횟수	변경안함					무응답	검 증 치	C
		1 회	2 회	3 회	4 회	5 회				
사회 진출 분야	남 N=201	66 (32.8)	50 (24.9)	40 (19.9)	15 (7.5)	11 (5.5)	9 (4.5)	10 (5.0)	$x^2 = 10.19$ $df = 6$ (N.S)	
	여 N=212	91 (42.9)	41 (19.3)	41 (19.3)	20 (9.4)	9 (4.2)	2 (0.9)	8 (3.8)		
대학 진학 분야	남 N=201	72 (35.8)	53 (26.4)	23 (11.4)	11 (5.5)	7 (3.5)	10 (5.0)	25 (12.4)	$x^2 = 23.11$ $df = 6$ $P < .01$.23
	여 N=212	99 (46.7)	30 (14.2)	25 (11.8)	9 (4.2)	5 (2.4)	1 (0.5)	43 (20.3)		

C : 顯關係數

〈표Ⅳ-5〉는 進路變更 回數를 나타낸 것으로 전체 학생의 32.8%~46.7%가 변경하지 않고 있으며, 1회 변경한 학생이 전체의 14.2%~26.4%로서 진로의 선택을 자주 바꾸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5) 尹熙峻, 李在信, “青少年들의 進路決定에 影響을 주는 社會心理的 要因에 관한 研究”, 忠北大學校, 『學生生活研究』 제10집, (1986), p.34.

사회 진출과 대학 진학을 비교해 보면, 대학 진학의 선택 변경이 사회 진출의 선택에서보다 그 횟수가 적다.

고 3이 되어 실제 진로를 선택결정하게 될 때면 위와 같은 결과가 달라지겠지만, 고 2까지는 대학 선택보다 사회 진출의 변경이 심하다.

〈 표Ⅳ-6 〉 進路選擇決定 理由

()안은 %

분야	성별	이유	안정성	장래성	보수	적성· 흥미	자율성	부모 님대	사회 적대우	가정 곤란	기타	무응 답	검 증 치	C
			(5.6)	(4.7)	(5.1)	(45.1)	(9.8)	(2.8)	(8.4)	(0.9)	(1.9)	(15.8)		
대학 진학	남 N=201		11 (5.6)	9 (4.7)	10 (5.1)	90 (45.1)	20 (9.8)	6 (2.8)	17 (8.4)	2 (0.9)	4 (1.9)	32 (15.8)	$\chi^2 = 23.89$ $df = 9$ $P < .01$.23
	여 N=212		20 (9.4)	7 (3.3)	5 (2.5)	78 (37.3)	15 (7.0)	5 (2.5)	9 (4.1)	3 (1.2)	2 (0.8)	68 (32.0)		
사회 진출	남 N=201		22 (10.7)	10 (5.1)	13 (6.5)	95 (47.0)	21 (10.2)	4 (1.9)	7 (3.7)	8 (4.2)	8 (4.2)	13 (6.5)	$\chi^2 = 9.43$ $df = 9$ N.S.	.
	여 N=212		32 (15.2)	14 (6.6)	9 (4.1)	89 (42.2)	24 (11.1)	9 (4.1)	5 (2.5)	4 (2.0)	7 (3.3)	19 (9.0)		

C : 類關係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표Ⅳ-6 〉은 진로 선택 결정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적성과 흥미를 우선으로 꼽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大學 進學의 경우 男學生은 적성·흥미 45.1%, 자율성 9.8%, 사회적 대우 8.4% 등이며, 女學生은 적성·흥미 37.3%, 안정성 9.4%, 장래성 3.3%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또한 무응답이 남녀 각각 15.8%, 32.0%인 것은 대학 진학에서 뚜렷한 목표의식 혹은 가치관의 결여라 할 수 있겠다.

사회 진출에 있어서 男學生은 적성·흥미 47.0%, 안정성 10.7%, 보수 6.5%, 女學生은 적성·흥미 42.2%, 안정성 15.2%, 자율성 11.1%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이는 김선봉이 보고한 ‘직업 선택 요인-적성, 안정성, 수입, 흥미, 사회봉사’와 비슷한 결과이다.⁵⁶⁾

개인의 진로선택에 작용하는 要因들은 여러 영향 요인들이 있겠는데 이를 조사한 결과는 < 표Ⅳ-7 > 과 같다.

< 표Ⅳ-7 > 진로선택시 영향받은 요인

()안은 %

성별	인원	요인	부모의 권유	형제척유	교사	매스컴	동료선배	가정환경	학업성적	적성취미	기타	무응답
남	201		24 (11.9)	12 (6.0)	4 (2.0)	7 (3.5)	7 (3.5)	12 (6.0)	33 (16.4)	90 (44.8)	12 (6.0)	0 (0.0)
여	212		32 (15.1)	8 (3.8)	5 (2.4)	7 (3.3)	5 (2.4)	17 (8.0)	35 (16.5)	85 (40.1)	11 (5.2)	7 (3.3)

$$\chi^2 = 10.21 \quad df = 9 \quad N.S.$$

개인의 적성·흥미 요인이 가장 많이 작용하고 있으며 학업성적, 부모의 권유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 보면, 男學生은 적성·취미가 44.8%, 학업성적 16.4%, 부모의 권유 11.9%, 女學生은 적성·취미 40.1%, 학업성적 16.5%, 부모의 권유 15.1% 등으로 나타났다.

B. 高校生の 適應診斷

오늘날 청소년들은 여러 영역에서 심각한 문제, 고민 등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욕구불만의 증대 나아가서는 사회적 일탈행위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고교생의 바른 적응을 위한 適應性을 診斷하기 위하여 성별, 계열별, 지역별 등으로 區分, 考察하였다.

56) 金善鳳, 「人文系 女子高等學校 就業班의 職業選擇에 관한 일 연구」, (碩士學位論文, 東國大學校, 1982).

〈 표 IV-8 〉 적응영역별 적응정도의 남·여 비교

()안은 %

적응영역	적응정도 성별	상	중	하	검 증 치	C
		(25% 이하)	(75~25%)	(75% 이상)		
학교	남	22 (10.9)	98 (48.8)	81 (40.3)	$x^2 = 2.48$ $df = 2$ N.S.	
	여	16 (7.5)	117 (55.2)	79 (37.3)		
장래	남	36 (17.9)	106 (52.7)	59 (29.4)	$x^2 = 4.12$ $df = 2$ N.S.	
	여	35 (16.5)	131 (61.8)	46 (21.7)		
경제	남	74 (36.8)	104 (51.7)	23 (11.4)	$x^2 = 21.6$ $df = 2$ $P < .01$.22
	여	38 (17.9)	153 (72.2)	21 (9.9)		
가정	남	54 (26.9)	99 (49.3)	48 (23.9)	$x^2 = 2.21$ $df = 2$ N.S.	
	여	44 (20.8)	112 (52.8)	56 (26.4)		
건강	남	30 (14.9)	105 (52.2)	66 (32.8)	$x^2 = 1.60$ $df = 2$ N.S.	
	여	24 (11.3)	119 (56.1)	65 (30.7)		
성격	남	50 (24.9)	78 (38.8)	73 (36.3)	$x^2 = 11.7$ $df = 2$ $P < .01$.17
	여	26 (12.3)	104 (49.1)	82 (38.7)		
여가	남	42 (20.9)	108 (53.7)	51 (25.4)	$x^2 = 0.86$ $df = 2$ N.S.	
	여	44 (20.8)	116 (54.7)	52 (24.5)		
사회	남	52 (25.9)	74 (36.8)	75 (37.3)	$x^2 = 5.48$ $df = 2$ N.S.	
	여	52 (24.5)	100 (47.2)	60 (28.3)		
교우	남	42 (20.9)	120 (59.7)	39 (19.4)	$x^2 = 1.22$ $df = 2$ N.S.	
	여	42 (19.8)	118 (55.7)	52 (24.5)		
이성	남	35 (17.4)	90 (44.8)	76 (37.8)	$x^2 = 5.23$ $df = 2$ N.S.	
	여	32 (15.1)	118 (55.7)	62 (29.2)		
가치 도덕	남	32 (15.9)	75 (37.3)	94 (46.8)	$x^2 = 8.91$ $df = 2$ $P < .01$.15
	여	21 (9.9)	108 (50.9)	83 (39.2)		

C : 類關係數 남자 N = 201 여자 N = 212

〈표Ⅳ-8〉을 보면 深刻한 問題나 苦悶이 있는 영역은 학교, 성격, 가치도덕 등으로 나타났으며, 적응에 문제가 없는 영역은 경제, 가정, 교우 등으로 나타났다.

남녀간 適應 程度 下集團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男學生이 비율이 높으나 ‘성격’은 女學生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性別에 따른 적응 정도별 관련은 ‘경제’ ($P = .01, C = .22$), ‘성격’ ($P = .01, C = .17$), ‘가치도덕’ ($P = .01, C = .15$) 등으로 남녀간 약한 相關을 보이고 있다.

〈표Ⅳ-9〉 適應 領域別 適應程度의 系列間 比較

()안은 %

적응 영역	적응정도 세열	상	중	하	검 증 치	C
		(25% 이하)	(25 ~ 75%)	(75% 이상)		
학 교	인 문	17(9.2)	104(56.2)	64(34.6)	$x^2 = 2.49$ $df = 2$	
	실 업	20(8.8)	112(49.1)	96(42.1)	N.S.	
장 래	인 문	28(15.1)	102(55.1)	55(29.7)	$x^2 = 3.56$ $df = 2$	
	실 업	43(18.9)	135(59.2)	50(21.9)	N.S.	
경 제	인 문	72(38.9)	100(54.1)	13(7.0)	$x^2 = 24.94$ $df = 2$.24
	실 업	40(17.5)	157(68.9)	31(13.6)	$P < .01$	
가 정	인 문	49(26.5)	92(49.7)	44(23.8)	$x^2 = 1.46$ $df = 2$	
	실 업	49(21.5)	119(52.2)	60(26.3)	N.S.	
건 강	인 문	24(13.0)	105(56.8)	56(30.3)	$x^2 = 0.37$ $df = 2$	
	실 업	30(13.2)	123(53.9)	75(32.9)	N.S.	
성 격	인 문	35(18.9)	79(42.7)	71(38.4)	$x^2 = 0.25$ $df = 2$	
	실 업	41(18.0)	103(45.2)	84(36.8)	N.S.	
여 가	인 문	32(17.3)	101(54.6)	52(28.1)	$x^2 = 1.95$ $df = 2$	
	실 업	46(20.2)	131(57.5)	51(22.4)	N.S.	

(계속)

적응영역	적응정도 계열	상	중	하	검 증 치	C
		(25% 이하)	(25 ~ 75%)	(75% 이상)		
사 회	인 문	46(24.9)	78(42.2)	61(33.0)	$\chi^2 = 0.01$ $df = 2$ N.S.	
	실 업	57(25.0)	97(42.5)	74(32.5)		
교 우	인 문	42(22.7)	111(60.0)	32(17.3)	$\chi^2 = 4.66$ $df = 2$ N.S.	
	실 업	42(18.4)	127(55.7)	59(25.9)		
이 성	인 문	34(18.4)	96(51.9)	55(29.7)	$\chi^2 = 2.68$ $df = 2$ N.S.	
	실 업	32(14.0)	113(49.6)	83(36.4)		
가 치 도 덕	인 문	22(11.9)	81(43.8)	82(44.3)	$\chi^2 = 0.42$ $df = 2$ N.S.	
	실 업	31(13.6)	102(44.7)	95(41.7)		

C = 類關係數 인문계 N = 185 실업계 N = 228

< 표Ⅳ-9 >는 系列間 適應 程度를 나타낸 것으로 적응이 안되는 영역은 ‘학 교’ (인문계 34.6%, 실업계 42.1%), ‘건강’ (인문계 30.3%, 실업계 32.9%), ‘성격’ (인문계 38.4%, 실업계 36.8%), ‘사회’ (인문계 33.0%, 실 업계 32.5%), ‘이성’ (인문계 29.7%, 실업계 36.4%), ‘가치도덕’ (인문계 44.3%, 실업계 41.7%) 등으로 나타났다. 계열별 적응 정도와의 관련은 ‘경 제’ 영역에서 관련을 보이고 있다. ($P = .01$, $C = .24$)

< 표Ⅳ-10 >은 系列間 適應性을 t-test 한 것으로서 實業系 學生들이 ‘경제’ ($P = .01$), ‘교우’ ($P = .01$), ‘이성’ ($P = .05$) 등의 영역에서 人文系 學 生들보다 苦悶거리가 많아 適應上 問題를 나타내고 있다.

〈 표Ⅳ-10 〉 系列別 適應性의 差

적응 영역	계열별	통계치	N	\bar{X}	SD	t	Sig.
학 교	인 문	185	20.48	6.67	- 0.83	N.S.	
	실 업	228	21.03	6.80			
장 래	인 문	185	11.96	5.95	1.34	"	
	실 업	228	11.21	5.51			
경 제	인 문	185	6.21	3.82	- 5.10	P < .01	
	실 업	228	8.13	3.82			
가 정	인 문	185	10.31	6.90	- 0.61	N.S.	
	실 업	228	10.73	7.12			
전 강	인 문	185	9.08	5.02	- 0.56	"	
	실 업	228	9.36	4.97			
성 격	인 문	185	16.54	8.17	- 0.28	"	
	실 업	228	16.75	7.64			
여 가	인 문	185	13.67	5.76	1.02	"	
	실 업	228	13.10	5.52			
사 회	인 문	185	13.38	7.86	- 0.28	"	
	실 업	228	13.60	7.57			
교 우	인 문	185	7.04	4.00	- 2.54	P < .01	
	실 업	228	8.07	4.20			
이 성	인 문	185	9.32	5.93	- 2.00	P < .05	
	실 업	228	10.51	6.02			
가 치 도 덕	인 문	185	17.46	8.65	0.89	N.S.	
	실 업	228	16.73	7.89			

C. 進路選擇決定과 適應과의 關係

〈표 IV - 11〉 卒業後 計劃과 適應領域別 程度

()안은 %

적응 영역	적응정도 계획	상	중	하	검 증 치	C
		(25% 이하)	(25 ~ 75%)	(75% 이상)		
학 교	진학	23(9.4)	130(53.1)	92(37.6)	$x^2 = 0.306$ $df = 2$ N.S.	
	취업	15(8.9)	85(50.6)	68(40.5)		
장 래	진학	40(16.3)	133(54.3)	72(29.4)	$x^2 = 5.142$ $df = 2$ N.S.	
	취업	31(18.5)	104(61.9)	33(19.6)		
경 제	진학	85(34.7)	144(58.8)	16(6.5)	$x^2 = 24.401$ $df = 2$ $P < .01$.24
	취업	27(16.0)	112(66.7)	29(17.3)		
가 정	진학	67(27.3)	120(49.0)	58(23.7)	$x^2 = 4.507$ $df = 2$ N.S.	
	취업	31(18.5)	91(54.2)	46(27.4)		
건 강	진학	35(14.3)	136(55.5)	74(30.2)	$x^2 = 1.450$ $df = 2$ N.S.	
	취업	19(11.3)	90(53.6)	59(35.1)		
성 격	진학	45(18.4)	108(44.1)	92(37.6)	$x^2 = 0.004$ $df = 2$ N.S.	
	취업	31(18.5)	74(44.0)	63(37.5)		
여 가	진학	50(20.4)	134(54.7)	61(24.9)	$x^2 = 1.166$ $df = 2$ N.S.	
	취업	36(21.4)	90(53.6)	42(25.0)		
사 회	진학	65(26.5)	104(42.4)	76(31.0)	$x^2 = 0.944$ $df = 2$ N.S.	
	취업	39(23.1)	70(42.0)	59(34.9)		
교 우	진학	53(21.6)	143(58.4)	49(20.0)	$x^2 = 1.948$ $df = 2$ N.S.	
	취업	31(18.5)	94(56.0)	43(25.5)		
이 성	진학	45(18.4)	123(50.2)	77(31.4)	$x^2 = 2.431$ $df = 2$ N.S.	
	취업	22(13.1)	85(50.6)	61(36.3)		
가 치 도 덕	진학	31(12.7)	107(43.7)	107(43.7)	$x^2 = 0.209$ $df = 2$ N.S.	
	취업	22(13.0)	76(45.6)	70(41.4)		

C = 類關係數

진학희망자 N = 245

취업희망자 N = 168

〈표Ⅳ-11〉은 進學希望者와 就業希望者間 적응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집단간 각 적응 영역에서 적응 정도는 適應下集團을 중심으로 볼 때 ‘장애’, ‘가치도덕’, 영역에서만 취업희망자가 대작전학자보다 심각한 문제가 적을 뿐 나머지 분야는 就業希望者가 대체적으로 많은 問題를 가지고 있다.

이는 進學을 希望하는 학생들은 취업희망자보다 적응을 잘하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지만 系列間 비교와 마찬가지로 ‘학교’, ‘건강’, ‘성격’, ‘사회’, ‘이성’, ‘가치도덕’ 영역에서 적응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전체의 30.2%에서 43.7%에 달 하고 있다.

한편 大學進學과 就業間에는 ‘경제’의 문제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P = .01, C = .24$)

각 적응 영역별 적응 정도에 따른 進路選擇決定의 傾向을 〈표Ⅳ-12〉, 〈표Ⅳ-13〉에 나타내었다.

〈표Ⅳ-12〉 適應程度에 따른 進路選擇傾向(사회진출분야) (수치는 %)

성별	사회진출분야 적응정도	사회진출분야									
		교육	사무 관리	의료	보건 위생	공업 기술	문화 어학	가정 의상	예체능	농수산	무응답
남	상	5.3	23.5	4.5	3.0	53.1	3.8	·	6.8	·	·
	중	10.4	18.9	3.7	2.9	54.7	3.2	0.1	6.0	·	·
	하	7.5	15.9	2.5	6.1	50.8	5.4	1.5	10.3	·	·
여	상	35.6	21.9	10.4	6.7	1.1	13.9	3.2	5.9	·	1.3
	중	26.2	21.1	10.2	6.8	1.3	16.3	5.2	10.5	0.5	1.6
	하	21.6	22.6	9.3	8.2	0.2	15.9	9.5	8.6	1.4	2.7

〈표Ⅳ-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適應上集團인 남학생은 공업기술 53.1%, 사무관리 23.5%, 예체능 6.8% 등의 순으로, 適應中集團은 공업기술 54.7%, 사무관리 18.9%, 교육 10.4% 등의 순으로, 適應下集團은 공업기술 50.8%, 사무관리 15.9%, 예체능 10.3% 등의 순으로 선택하고 있다.

사무관리, 의료분야는 적응을 잘 하는 학생일수록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문화어학, 예체능은 적응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더 선호하고 있다.

한편, 適應上集團인 여학생은 교육 35.6%, 사무관리 21.9%, 문화어학 13.9% 등의 순으로, 適應中集團은 교육 26.2%, 사무관리 21.1%, 문화어학 16.3% 등의 순으로, 適應下集團은 사무관리 22.6%, 교육 21.6%, 문화어학 15.9% 등의 순으로 선택하고 있다. 교육분야는 적응을 잘 하는 학생이 더 선호하고 있으며, 보건·위생, 문화어학, 가정의상 분야는 적응에 문제가 있는 학생일수록 더 선호하고 있다.

〈표Ⅳ-13〉 適應程度에 따른 進路選擇 傾向 (대학진학)

(수치는 %)

성별	대학진학 적응정도	대학진학 분야												
		문학	사범	법학	경상	이학	의치 약학	공학	농수 산	가정	예능	특수	무응 답	
남	상	4.3	5.3	0.4	16.6	2.1	6.2	45.4	16.0	0.4	3.2	·	·	
	중	3.1	8.3	0.8	15.1	3.5	5.4	40.7	15.5	1.7	5.8	·	·	
	하	5.0	4.2	0.1	13.4	2.6	5.3	38.1	18.2	3.4	9.6	·	·	
여	상	11.8	21.9	7.8	5.6		12.0	·	5.9	11.8	14.2	0.5	8.6	
	중	15.3	19.3	2.6	7.3	1.6	13.5	·	2.5	10.9	20.1	0.7	6.2	
	하	13.1	17.0	7.6	7.4	5.3	8.5	·	2.6	10.5	18.8	2.0	7.1	

〈표Ⅳ-13〉은 대학 진학시 선택 분야를 나타낸 표로서 適應上集團인 男學生은 공학 45.4%, 경상 16.6%, 농수산 16.0% 등의 순으로, 適應中集團은 공학 40.7%, 농수산 15.5%, 경상 15.1% 등의 순으로, 適應下集團은 공학 38.1%, 농수산 18.2%, 경상 13.4% 등의 순으로 선택하고 있다. 분야별 적응정도와의 관련을 살펴보면, 사범, 경상, 의치약학, 공학 등은 적응에 문제가 없는 학생일수록 높게 선호하고 있으며, 문학, 예능 등은 적응에 문제가 많은 학생일수록 더 선호하고 있다.

女學生의 경우 適應上集團은 사범 21.9%, 예능 14.2%, 의치약학 12.0% 등의 순으로, 中集團은 예능 20.1%, 사범 19.3%, 문학 15.3% 등의 순으로, 下集團은 예능 18.8%, 사범 17.0%, 문학 13.1% 등의 순으로 선택하고 있다. 분야별 적응정도와의 관련을 살펴보면 문학, 사범, 의치약학, 농수산, 가정 등은 적응에 문제가 없는 학생일수록 높게 선호하고 있으며, 경상, 예능 등은 적응에 문제가 많은 학생일수록 더 선호하고 있다.

졸업 후 계획 즉 취업인가 대학진학인가에 따른 각 적응 영역과의 상관관계를 남녀별로 〈표Ⅳ-14〉, 〈표Ⅳ-15〉와 같이 나타내었다.

〈표Ⅳ-14〉 卒業後 計劃, 未來觀과 適應과의 相關關係 (남학생)

	졸업 후 계획	미 래 관
졸업 후 계획		-.019
학 교	-.097	-.070
장 래	.079	-.194**
경 제	-.336**	.009
가 정	-.077	-.037
건 강	-.083	-.052
성 격	-.036	-.082
여 가	-.006	-.007
사 회	-.138*	-.107
교 우	-.057	-.093
이 성	.007	-.087
가 치·도 덕	-.014	.016

* $p < .05$

** $p < .01$

〈표Ⅳ-14〉를 보면, 男學生의 졸업 후 계획에 상관있는 적응 영역은 ‘경제’ ($r=.336, p=.01$)와 ‘사회’ ($r=.138, p=.05$) 두 영역이다. 그리고 개인의 미래관과 상관있는 적응 영역은 ‘장래’ ($r=-.194, p=.01$)이다.

〈표Ⅳ-15〉 졸업후 계획, 미래관과 적응과의 상관관계 (여학생)

	졸업 후 계획	미 래 관
졸업후 계획		.110
학 교	.037	-.002
장 래	.104	-.025
경 제	-.128	.071
가 정	-.099	-.041
건 강	-.034	-.037
성 격	.054	-.053
여 가	.098	.075
사 회	.036	.040
교 우	-.092	-.074
이 성	-.164*	.031
가치·도덕	.046	-.036

* $p < .05$

〈표Ⅳ-15〉를 보면, 女學生의 졸업 후 계획과 상관있는 적응 영역은 ‘이성’ ($r=-.164, p=.05$)이며, 미래관과 상관있는 적응 영역은 없다.

고교생의 諸領域에서 적응이 졸업 후 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重多回歸分析한 결과가 〈표Ⅳ-16〉, 〈표Ⅳ-17〉이다.

〈 표Ⅳ- 16 〉 적응하위요인이 졸업후 계획에 미치는 영향(男學生)

하위 요인	R	R ²	R ² Change	r	β	F
경 제	0.33641	0.11317	0.11317	-0.33641	-0.41937	25.395**
장 래	0.39948	0.15958	0.04641	0.07883	0.22506	18.799**
사 회	0.40769	0.16621	0.00662	-0.13838	-0.18829	13.090**
여 가	0.42007	0.17645	0.01025	-0.00558	0.10058	10.499**
이 성	0.42531	0.18089	0.00443	0.00741	0.08667	8.613**
학 교	0.42990	0.18481	0.00393	-0.09669	-0.08858	7.330**
성 격	0.43209	0.18670	0.00189	-0.03580	0.04399	6.330**
가치도덕	0.43333	0.18777	0.00107	-0.01412	0.04232	5.548**
가 정	0.43377	0.18816	0.00039	-0.07721	0.02338	4.919**
건 강	0.43392	0.18829	0.00013	-0.08346	0.01505	4.407**

* $p < .05$ ** $p < .01$

〈 표Ⅳ- 17 〉 적응하위요인이 졸업후 계획에 미치는 영향(女學生)

하위 요인	R	R ²	R ² Change	r	β	F
이 성	0.16396	0.02688	0.02688	-0.16396	-0.24899	5.801*
여 가	0.25472	0.06488	0.03800	0.09840	0.20913	7.251**
경 제	0.27724	0.07686	0.01198	-0.12830	-0.11497	5.773**
장 래	0.29942	0.08966	0.01280	0.10142	0.11997	5.097**
교 우	0.31660	0.10024	0.01058	-0.09191	-0.13909	4.590**
가치도덕	0.32781	0.10746	0.00722	0.04648	0.09192	4.114**
사 회	0.33430	0.11175	0.00429	0.03576	0.07197	3.667**
가 정	0.33855	0.11462	0.00286	-0.09913	-0.08376	3.285**
성 격	0.34231	0.11718	0.00256	0.05422	0.06479	2.979**
학 교	0.34273	0.11746	0.00028	0.03658	-0.02918	2.675**
선 강	0.34328	0.11784	0.00038	-0.03372	0.02544	2.429**

* $p < .05$ ** $p < .01$

< 표Ⅳ-16 >을 보면 男學生의 적응이 졸업 후 계획과의 중다상관은 .43이며 이의 설명력은 18.8%이다. 가장 많이 설명해 주는 영역은 경제로서 11.3%, 장래 4.6%, 여가 1.0% 등이며, 그 외의 영역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 표Ⅳ-17 >은 女學生과 졸업 후 계획과의 중다상관분석한 것으로 이의 상관계수는 .34이며 11.8%의 설명력을 갖고 있다. 가장 많이 설명해 주는 領域은 여가로서 3.8%, 이성 2.7%, 장래 1.3%, 경제 1.2% 등이며 그 외의 영역은 미약하다.

< 표Ⅳ-18 > 適應下位要因이 進路選擇 決定에 미치는 影響

진로선택결정	구분	통계치		SE	F	Significance
		R	R ²			
졸업후 계 획 (남자)	전 제 N= 201	0.43395	0.18831	0.45572	3.99	P < .01
	인문계 N= 100	0.45299	0.20520	0.18623	2.07	P < .05
	실업계 N= 101	0.34270	0.11744	0.42596	1.08	N.S.
	도 시 N= 81	0.39094	0.15283	0.36605	1.13	N.S.
	농 촌 N= 120	0.43595	0.19006	0.47009	2.30	P < .01
졸업후 계 획 (여자)	전 제 N= 212	0.34328	0.11784	0.47567	2.43	P < .01
	인문계 N= 85	0.42106	0.17729	0.26906	1.43	N.S.
	실업계 N= 127	0.26542	0.07045	0.48919	0.79	N.S.
	도 시 N= 102	0.43922	0.19292	0.42681	1.96	P < .05
	농 촌 N= 110	0.35663	0.12718	0.49359	1.30	N.S.

이들을 地域別, 系列別로 전체적인 적응성이 설명하는 R^2 를 나타내었다.

적응 하위 요인이 진로 선택 결정을 설명하는 양은 人文系 男子 20.5%, 都市地域 女子 19.3%, 農村地域 男子 19.0%, 人文系 女子 17.7%, 都市地域 男子 15.3%, 農村地域 女子 12.7%, 實業系 男子 11.7% 등이다.

적응의 제영역에서 문제점이 많은 학생들은 욕구불만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의 진로 변경 횟수, 진로 결정 최초 시기 등과 적응과의 상관관계는 <표 IV-19>, <표 IV-20> 과 같다.

< 표 IV - 19 > 進路選擇 決定과 適應下位要因과의 關係
(適應 下 集團의 男學生)

	진로 변경 횟수	진로결정 최초시기
학 교	-.229*	.241*
장 래	-.151	.070
경 제	.392*	-.410*
가 정	.166	.302*
건 강	.162	.070
성 격	.266*	-.106
여 가	.171	.023
사 회	.260*	.088
교 우	.049	.357*
이 성	.023	-.192*
가 치·도덕	.114	.181*

* $p < .05$

〈 표 IV - 20 〉 進路選擇 決定과 適應下位 要因과의 關係
(適應 下集團의 女學生)

	진로 변경 횟수	진로결정 최초시기
학 교	.042	.060
장 래	.262*	-.249*
경 제	.358	-.188
가 정	.321**	-.216*
건 강	.155	-.028
성 격	.191*	-.103
여 가	.180	-.085
사 회	.014	.108
교 우	.091	.079
이 성	.154	.096
가 치 도 덕	.198*	-.159

* $p < .05$

** $p < .01$

男學生의 경우 학교영역에서 문제가 많으면 進路決定時期가 늦어지고 있으며, '경제', '가정', '사회', '교우', '이성', '가치도덕'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

女學生의 경우 진로 변경 횟수, 진로 결정 시기와 상관성이 있는 적응 영역은 '장래', '가정', '성격', '가치도덕' 등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보면 進路決定時期가 빠를수록 그 變更回數는 많아지고 있다.

V. 要約 및 結論

A. 要約

本 研究는 高校生의 進路選擇決定이 適應과 어떤 關係를 갖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표집된 대상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제한하였으며, 인문·실업계가 고루 표집되도록 인문계 3개 학교, 실업계 4개 학교가 선정되었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進路教育과 進路選擇決定理論에 비추어 본 고교생들의 진로선택결정과정과 그 경향
2. 진로결정 이유 및 影響要因 分析
3. 進路選擇決定過程의 性別·系列別·地域別 差異 分析
4. 高校生들의 適應性 診斷
5. 進路選擇과 適應性과의 關係 究明
6. 進路分野, 進路變更回數間과 적응성과의 關係

이상의 研究問題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로선택 결정을 묻는 자작 질문지와 適應性을 診斷하는 이상로·변창진의 표준화적응진단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자료의 처리는 SPSS를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 1% 또는 5%에서 알아보았다. 이와 같은 過程에서 얻어진 자료의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進路選擇決定

a. 고교생의 졸업 후 계획을 보면 인문계 고교생의 90% 이상 진학을 희망하고 있으며, 실업계 고교생도 30% 이상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

b. 사회로 진출할 경우 남학생들은 53.2%가 공업기술 분야를, 여학생들은

26.9%가 교육분야를 우선 꼽고 있다. 대학진학 계열 선택에 있어서 남학생의 41%가 공학계열을, 19%가 사범 및 예능계열을 선택하고 있다.

c. 진로의 최초 결정은 31%에서 76%가 국민학교 때 이루어지고 있다.

d. 진로의 변경 횟수 비교에서 변경을 하지 않거나 1회 정도 하고 있다.

e. 진로를 선택 결정하는 이유로서 남녀 모두 적성과 흥미를 우선하고 있으며, 영향받는 요인으로는 적성·흥미 이외에 학업성적 16%, 부모의 권유 14%로 나타나고 있다.

2. 高校生の 適應程度

a. 청소년들이 적응에 문제있는 하위영역들은 학교, 건강, 성격, 사회, 이성, 가치·도덕 등이다. 그 중에서도 남학생의 경우 가치도덕(46.8%), 학교(43.0%) 등의 領域에서, 여학생의 경우 가치·도덕(39.2%), 성격(38.7%) 등에서 높게 반응하고 있다.

b. 계열간 適應程度의 比較에서 人文, 實業 모두 가치도덕과 학교, 성격, 사회 등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래, 성격, 여가, 사회, 가치도덕 등의 영역은 人文系 高等學生이 문제점을 많이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에 따른 適應程度와의 關聯 있는 領域은 '經濟'로서 약한 相關을 보이고 있다. ($P=.01$, $C=.24$)

c. 系列別 適應性的의 差異 檢證에서 두 集團間 有意한 差를 보이는 영역은 경제, 교우, 이성 등의 영역이다. 즉, 경제, 교우, 이성 등의 영역에서 實業系 高校生들이 더 많은 問題를 가지고 있다.

3. 進路選擇決定과 適應

a. 진학희망자와 취업희망자 간의 적응관계는 취업희망자가 대체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 영역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b. 적응에 문제가 없는 학생들은 주로 사무관리, 의료분야를 선호하고 있으

며, 적응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문화어학 예체능을 선호하고 있다. 반면, 여학생은 적응에 문제가 없는 학생일수록 교육분야를, 그렇지 않은 학생은 보건·위생, 문화어학, 가정의상을 선호하고 있다.

c. 졸업 후 계획, 미래관과 적응과의 상관관계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경제’ ‘사회’ ‘장래’ 등의 영역과, 여학생의 경우 ‘이성’의 영역과 상관을 보이고 있다.

d. 진로 선택 결정을 설명하는 적응 하위 요인은 인문계 남자 20.5%, 도시여자 19.3% 등으로 나타났다.

e. 진로 결정 시기 변경과 적응과의 관계는 진로 변경 횟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학교, 경제, 성격, 사회, 가치도덕 등이며, 진로결정시기에 상관있는 영역은 장래, 학교, 경제, 가정, 교우, 이성, 가치도덕 등이다.

B. 結 論

研究 結果를 통해 얻어진 結論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교생의 상당수가 대학진학을 원하고 있으며, 그들의 사회진출 분야는 공업기술, 교육, 사무관리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대학진학 분야로는 공학, 경상, 사범 계열을 선호하는 傾向이다.

둘째, 進路選擇決定 最初 時期는 국민학교 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進路變更 回數는 적다. 進路選擇決定 理由로는 적성·흥미와 안전성을 들고 있으며, 進路選擇決定時 영향받은 要因으로는 적성·취미, 학업성적, 부모의 권유 등을 들고 있다.

셋째, 고교생들이 느끼는 심각한 고민거리는 학교, 성격, 가치도덕 등의 영역이다. 특히 實業系 高校生들은 ‘경제’ 영역이 人文系 高校生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進路選擇決定과 適應性과의 關係에서 進學·就業에 영향을 미치는 適應 下位要因은 경제, 사회 등의 영역이며, 進路變更 回數는 학교, 경제, 성격, 사회,

장래 등의 영역과, 그리고 진로결정시기와는 장래, 가정, 학교, 경제, 가정, 교우, 이성, 가치도덕 등의 영역과 關係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할 때, 教育的인 示唆點은 많은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있으나 30% 정도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우리의 현실로 볼 때 進路教育을 強化하여 올바른 進路意識을 심어줘야 하겠다. 또한, 어릴 때부터 진로 교육을 실시하여 성장하면서 探索, 具體化, 選擇 等の 段階를 밟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으며, 諸 領域에서 適應을 잘 할 수 있도록 肯定的인 思考와 欲求挫折 耐忍性을 갖게 함과 동시에 進路選擇決定에 關係가 깊은 경제, 사회, 학교 등의 영역에서 올바른 적응지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高校生の 進路選擇決定과 適應性과의 關係를 考察하고자 실시되었으나 對象의 選定·測定道具의 不備로 確然히 밝히지 못하였다. 앞으로 이의 보완을 통한 後續研究가 있어야 하겠다.



參 考 文 獻

- 賈龍鉉, 「人文系 高等學校 學生의 進路에 대한 意識과 態度에 관한 調查研究」,
仁荷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4.
- 姜武燮外 2人, 「職業教育의 費用-效果 / 收益分析」, 서울: 韓國教育開發院, 1983.
- 姜武燮·朴英淑, 「學生의 進路 決定 過程 分析」, 서울: 韓國教育開發院, 1984.
- 곽병선外 2人, 「國民學生의 進路認識」, 서울: 韓國教育開發院, 1983.
- 高永喜, “進路選擇 指導의 意思決定 理論的 接近” 「學生指導研究」, 朝鮮大學校,
1980.
- 教育改革審議會, 「21 세기를 향한 한국교육」, 教育改革審議會, 1987.
- 權宗復, “青少年을 위한 教育政策” 「文教行政」, 통권 제 29 호, 1984.
- 金京淑, 「高等學校 學生의 職業抱負 決定要因에 관한 研究」, 淑明女大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3.
- 吉亨奭(譯), Mitchell, J. S. 著, 「進路開發教育」, 서울: 教育出版社, 1984.
- . “青少年의 進路教育” 「學生指導研究」, 제 3 집, 덕성여대, 1983.
- 金相大 “進路教育의 現況 및 改善方案” 「論文集」, 제 23 집, 慶尙大, 1984.
- 金言柱, 「新教育心理學」, 서울: 文音社, 1987.
- 金勇作, 「國民學校 社會科 指導를 통한 進路教育에 관한 研究」, 慶熙大 教育大
學院 碩士學位論文, 1987.
- 金元中, 「進路意識 成熟과 社會·心理的 要因과의 關係」, 서울大 大學院 碩士學
位論文, 1984.
- 金仁植(譯), Blair, G. M., Jones, S. 著, 「青年心理學」, 서울: 培英社, 1982.
- 金仁子(譯), Atwater, E. 著, 「適應心理」, 서울: 正民社, 1983.
- 金忠起, 「進路教育和 進路指導」, 서울: 培英社, 1986.

- . 「生涯教育의 課題와 展望」. 서울: 대람, 1981.
- . “進路教育 實踐方案을 위한 探索의 一研究”. 「論文集」. 제 6 집. 建國大學校, 1982.
- . “進路情報資料의 利用과 對策”. 「論文集」. 제 7 집. 建國大學校, 1983.
- . “中等學校에 있어서 進路教育 프로그램 開發에 관한 研究”. 「論文集」. 제 9 집. 建國大學校, 1985.
- 金孝奎. 「高等學生들의 欲求水準 및 適應도가 學業成就도에 미치는 效果」. 全南大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6.
- 羅東晉. 「教育心理學」. 서울: 培英社, 1984.
- 南在壽. “職業相談과 生涯 計劃相談”. 「學生指導研究」. 創刊號. 安東大學, 1980.
- 文教部. 「青少年指導資料(教師用)」. 서울: 文教部, 1984.
- 文奉官. “職業價置觀에 의한 職業選擇”. 「論文集」. 제 11 집. 서울教育大學, 1978.
- 閔榮順. 「教育心理學新講」. 서울: 文音社, 1982.
- 朴己鎬. 「青少年 勤勞學生의 價値觀에 관한 研究」. 釜山大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4.
- 朴東俊·車甲富. “人文系 高等學校 學生의 進路計劃에 관한 研究”. 「教育論叢」. 제 1 집. 中央大學校, 1984.
- 朴性洙. 「現代人의 心理와 카운슬링」. 서울: 한국방송사업단, 1982.
- 朴 堉. 「高等學校 學生들의 進學指導에 관한 調查研究」. 慶尙大 教育大學院, 1985.
- 白在雄. 「不適應 青少年의 症狀呼訴와 MMPI 와의 關係」. 高麗大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0.
- 朴孝燮. 「高校生의 欲求傾向과 適應 및 學業成就度와의 關係」. 忠北大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2.
- 白宗欽. 「어머니의 養育態도와 子女의 學校適應과의 關係」. 慶尙大 教育大學院

- 碩士學位論文, 1984.
- 徐鳳延(譯). Lazarus, R. S. 著. 「性格과 適應」. 서울: 益文社, 1980.
- 宋周愛. 「大學生의 不安과 適應에 관한 연구」. 高麗大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7.
- 柳基燮. “中·高等學生들에 대한 進路指導의 現況과 進路選定의 特徵” 「教育論叢」. 제 1 집. 中央大學校, 1984.
- 윤희준·이재신.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회·심리학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제 10 집. 충북대학교, 1986.
- 이명자. “진로지도” 「학생지도연구」. 제 14 권 1 호. 경북대학교, 1981.
- 李榮德·鄭元植. 「生活指導의 原理와 實際」. 서울: 教學圖書株式會社, 1971.
- 李永植. “進路指導의 過程模型 開發을 위한 研究” 「論文集」. 제 27 집. 全北大 學校, 1985.
- 李潤樹. “實業系 高校에서의 職業教育” 「私學」. 봄호. 大韓私立 中高等學校長會, 1987.
- 李定根. 「進路指導와 進路相談」. 서울: 中央適性研究所, 1984.
- 이재신. “職業選擇에 관한 意思決定의 關聯要因 探索” 「學生生活研究」. 제 8 집. 忠北大學校, 1984.
- 李載昌外 4 人. 「青少年問題 綜合診斷 研究」.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1.
- 李載昌外 3 人. 「青少年 意識構造 및 形成背景」. 서울: 韓國教育開發院, 1983.
- 李宗宰外 3 人. 「韓國人의 教育觀」. 서울: 韓國教育開發院, 1981.
- 李炫林. “職業意識 構造의 發達” 「學生研究」. 제 9 권 제 1 호, 1978.
- 任根培. 「中·高等學校 學生의 進路意識에 관한 研究」. 建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7.
- 林龍雨. 「家族體制 類型과 青少年의 不適應 行動과의 關係」. 서울대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4.

- 全國敎大 兒童發達과 生活指導研究會編, 「兒童發達과 生活指導」, 서울:敎育出版社, 1976.
- 鄭榮九, 「人文系 高校生の 進路指導에 관한 研究」, 慶熙大學校 敎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4.
- 鄭元植, 「人間과 敎育」, 서울:培英社, 1968.
- 曹文鉉, 「韓國 高等學生의 進路計劃 設定過程에 관한 研究」, 서울:韓國敎育開發院, 1982.
- 최정훈·이성호, “우리 나라 대학생들의 사회진출에 따른 의식구조 내용의 분석” 「敎育과학」, 제 22집, 연세대학교, 1982.
- 靑少年對策委員會, 「靑少年白書」, 서울:文敎部, 1983.
- 崔順福, 「고교생의 지능·학업성취와 적응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敎育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한국敎育개발원, 「進路敎育資料」, 서울:한국敎育개발원, 1982.
- , 「2000년대의 사회발전과 敎育」, 서울:敎育과학사, 1984.
- 韓完相, 「現代 젊은이의 挫折과 熱望」, 서울:培英社, 1982.
- 咸鍾漢, 「靑少年」, 서울:尙潮社, 1985.
- 洪基享·李承雨, 「進路指導-理論과 實際」, 서울:敎育出版社, 1983.
- 洪在診, 「중학생의 성격 및 적응실태에 관한 연구」, 인하대 敎育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黃應淵, 「生活指導」, 서울:培英社, 1980.
- , “진로지도의 위치와 중요성” 「문교행정 19호」, 1983.
- , “진로지도의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연구보고서」, 제 18집, 한국학술진흥재단, 1981.
- 黃應淵·李定根, 「중등학교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敎育개발원, 1981.

- 黃應淵·尹熙峻, 「現代生活指導論」, 서울: 교육출판사, 1984.
- 許東淳, 「思春期の 欲求不満과 適應機制에 관한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 許鐵洙, “고교생의 진로선택과 결정의 합리적 방안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제 8 집, 제주대 학생생활연구소, 1986.
- 日本進路指導學會編, 「進路指導の理論と方法」, 福村出版刊, 1982.
- 日本進路指導協會, 「中學校·高等學校 進路指導の手引」, 文部省, 1987.
- , 「主體的な進路選擇力を育てる進路指導」, 文部省, 1985.
- Blackburn, R. T., Lawrence, J. H., “Aging and the Quality of Faculty Job Performance,”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Vol. 56, 1986.
- Brown, D., “The Status of Holland’s Theory of Vocational Choice,”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 36, 1987.
- Calhoun, C. C., Finch, A. V., *Vocational Education*. California: Wadsworth Pub. Co., 1982.
- Crites, J. O., *Career Counseling*.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81.
- Fields, M. W., Shallenberger, W. R., “The Influence of Age and Education on Perceptions of Occupational Attractiveness,”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Vol. 60, 1987.
- Halstead, R., “Career Education” *Critical Issues in Education Policy*. Boston: Allyn and Bacon, 1980.
- Holland, J. L., “Current Status of Holland’s Theory of Careers: Another Perspective,”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 36, 1987.
- Norris, W., et al., *The Career Information Service*.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 Co., 1979.
- Splete, H., George, A. F., “Family Influences on the Career Development of

- Young Adul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Sep. 1985.
- Teasdale, T. W., Owen, D. R., "The Influence of Paternal Social Class on Intelligence and Educational Level in Male Adoptees and Non-Adoptees," *The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56, 1986.
- Tolbert, E. L.,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80.
- Weinberg, S. L., Tittle, C. K., "Congruence of Real and Ideal Job Characteristics: A Focus on Sex, Parenthood Status, and Extrinsic Characteristic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30, 1987.



< Abstract >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Choice Decision-Making
and Adjustment of High School Students

Kang See-young

Educational Administr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Heo Chul-soo*

I. The Purpose of Study

The young generations have deep interests in themselves and their future and try to realize their idealistic ego, but they often meet with many problems and obstacles because of the developmental distinctive feature and the social demand.

Most of the students worry about the problem of their course for entering a higher grade or for choosing an occupation. In addition, it is keenly necessary for the students to be guided in the placement of their future so as to adapt themselves to the urgent social change.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criticize the determining course of entering a higher grade or choosing an occupation and to have a thorough grasp of its problems. Through enquiring into the adjustment realities in relation to the above,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Dec., 1988.

the very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their sound adjustment with apprehending their adjustment problems caused in the course of entering a higher grade or choosing an occupation.

Ⅱ. The Method of Study

1.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the second grade students of high school and the numbers of them are 413 Students - 185 students of general high schools and 228 students of vocational high schools.

2. The survey instruments are the Standard Adjustment Diagnostic Test that was made by Lee Sang-ro and Pyun Chang-jin, and the questionnaire that was made by researcher.

3. The methods of statistical survey are t-tes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ultiple correlation, Pearson's correlation etc. by taking advantage of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Ⅲ. The Result of Study

The very important result that was clarified through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candidates of employment have more problems in many fields than that of entering a higher grade.

2. There are distinctions between boys and girls in their desired field of choosing an occupation. That is to say, boys have a stronger tendency to choose an occupation in the fields of office work, management or medical treatment than girls. On the other hand, girls have a stronger tendency to choose an occupation in the fields of education than boys.

3. Boys and girls have a different tendency to choose the major field of a college. Boys want to choose the departments of education, economy, commerce, medical science, dentistry, pharmacology, or engineering, and girls want to choose the departments of literature, education, medical science, dentistry, pharmacology,

agriculture, marine products, or home management.

4. The adjustment tendency in relation to the determination of entering a higher grade or choosing an occupation has a close connection with economy, society and sex.

5. The faster the speed of determining a course is, the more the frequency of changing a course is.



(부록)
 < 표 1 > 적응 정도에 따른 학생들의 진로 선택 분야(사회진출)

(남자)

()안은 %

적응 영역	진로선택분야		교 육	사무관리	의 료	보건위생	공업기술	문화어학	가정의상	예술예능	농 수 산	무 응 답
	상	인원										
학 교	상	22	1 (4.5)	4 (18.2)	1 (4.5)	2 (9.1)	13 (59.1)	-	-	1 (4.5)	-	-
	중	98	7 (7.1)	25 (25.5)	5 (5.1)	1 (1.0)	49 (50.0)	4 (4.1)	-	7 (7.1)	-	-
	하	81	9 (11.1)	9 (11.1)	1 (1.2)	5 (6.2)	45 (55.6)	4 (4.9)	1 (1.2)	7 (8.6)	-	-
상 래	상	36	2 (5.6)	6 (16.7)	3 (8.3)	1 (2.8)	19 (52.8)	3 (8.3)	-	2 (5.6)	-	-
	중	106	8 (7.5)	18 (17.0)	4 (3.8)	5 (4.7)	63 (59.4)	2 (1.9)	-	6 (5.7)	-	-
	하	59	7 (11.9)	14 (23.7)	-	2 (3.4)	25 (42.4)	3 (5.1)	1 (1.7)	7 (11.9)	-	-
경 제	상	74	4 (5.4)	19 (25.7)	5 (6.8)	1 (1.4)	38 (51.4)	3 (4.1)	-	4 (5.4)	-	-
	중	104	12 (11.1)	16 (15.1)	2 (2.4)	4 (4.0)	57 (54.8)	4 (4.0)	1 (0.8)	8 (7.9)	-	-
	하	23	-	4 (17.4)	-	2 (8.7)	11 (47.8)	2 (8.7)	-	4 (17.4)	-	-
가 정	상	54	2 (3.7)	12 (22.2)	2 (3.7)	2 (3.7)	33 (61.1)	1 (1.9)	-	2 (3.7)	-	-
	중	99	14 (14.1)	17 (17.2)	5 (5.1)	3 (3.0)	50 (50.5)	6 (6.1)	-	4 (4.0)	-	-
	하	48	1 (2.1)	9 (18.8)	-	3 (6.3)	24 (50.0)	1 (2.1)	1 (2.1)	9 (18.8)	-	-
건 강	상	30	2 (6.7)	9 (30.0)	-	1 (3.3)	16 (53.3)	1 (3.3)	-	1 (3.3)	-	-
	중	105	11 (10.5)	19 (18.1)	4 (3.8)	3 (2.9)	58 (55.2)	4 (3.8)	-	6 (5.7)	-	-
	하	66	4 (6.1)	10 (15.2)	3 (4.5)	4 (6.1)	33 (50.0)	3 (4.5)	1 (1.5)	8 (12.1)	-	-
성 격	상	50	3 (6.0)	14 (28.0)	1 (2.0)	2 (4.0)	26 (52.0)	1 (2.0)	-	3 (6.0)	-	-
	중	78	8 (10.3)	12 (15.4)	3 (3.8)	1 (1.3)	48 (61.5)	3 (3.8)	-	3 (3.8)	-	-
	하	73	6 (8.2)	12 (16.4)	3 (4.1)	5 (6.8)	33 (45.2)	4 (5.5)	1 (1.4)	9 (12.3)	-	-
여 가	상	42	2 (4.8)	9 (21.4)	3 (7.1)	1 (2.4)	23 (54.8)	1 (2.4)	-	3 (7.1)	-	-
	중	108	11 (10.2)	23 (21.3)	3 (2.8)	2 (1.9)	58 (53.7)	3 (2.7)	-	8 (7.4)	-	-
	하	51	4 (7.8)	6 (11.8)	2 (4.0)	5 (9.8)	26 (51.0)	4 (7.8)	1 (2.0)	4 (7.8)	-	-
사 회	상	52	5 (9.6)	10 (19.2)	2 (3.8)	2 (3.8)	25 (48.1)	3 (5.8)	-	5 (9.6)	-	-
	중	74	7 (9.5)	17 (23.0)	3 (4.1)	1 (1.4)	40 (54.1)	1 (1.4)	-	5 (6.8)	-	-
	하	75	5 (6.7)	11 (14.7)	2 (2.7)	5 (6.7)	42 (56.0)	4 (5.3)	1 (1.3)	5 (6.7)	-	-
교 우	상	42	3 (7.0)	8 (18.6)	2 (4.7)	1 (2.3)	23 (55.8)	1 (2.3)	-	4 (9.3)	-	-
	중	120	10 (8.4)	24 (20.2)	5 (4.2)	4 (3.4)	63 (52.9)	4 (3.4)	-	9 (7.6)	-	-
	하	39	4 (10.3)	6 (15.4)	-	3 (7.7)	20 (51.3)	3 (7.7)	1 (2.6)	2 (5.1)	-	-
이 성	상	35	1 (2.9)	10 (28.6)	1 (2.9)	1 (2.9)	16 (45.7)	2 (5.7)	-	4 (11.4)	-	-
	중	90	12 (13.3)	16 (17.8)	2 (2.2)	4 (4.4)	50 (55.6)	2 (2.2)	-	4 (4.4)	-	-
	하	76	4 (5.3)	12 (15.8)	4 (5.3)	3 (3.9)	41 (53.9)	4 (5.3)	1 (1.3)	7 (9.2)	-	-
가치도덕	상	32	-	9 (28.1)	1 (3.1)	-	17 (53.1)	2 (6.3)	-	3 (9.4)	-	-
	중	75	10 (13.3)	13 (17.3)	3 (4.0)	3 (4.0)	42 (56.0)	1 (1.3)	-	3 (4.0)	-	-
	하	94	7 (7.4)	16 (17.0)	3 (3.2)	5 (5.3)	48 (51.1)	5 (5.3)	1 (1.1)	9 (9.6)	-	-

〈 표 2 〉 적응 정도에 따른 학생들의 진로 선택 분야 (사회진출)

(여자)

()안은 %

진로선택분야	응답자수	적응 정도	진로선택분야									
			교육	사무관리	의료	보건위생	공업기술	문화어학	가정영상	예술예능	농수산	무응답
학 교	상	16	7 (46.7)	4 (26.7)	2 (13.4)	3 (20.0)	-	-	-	-	-	-
	중	117	31 (27.1)	26 (22.0)	13 (11.0)	5 (4.2)	2 (1.7)	18 (15.3)	8 (6.8)	12 (10.2)	1 (0.8)	1 (0.8)
	하	79	18 (22.8)	16 (20.3)	6 (7.6)	7 (8.9)	-	17 (21.5)	4 (5.1)	8 (10.1)	-	3 (3.8)
장 래	상	35	13 (37.1)	6 (17.1)	4 (11.4)	3 (8.6)	-	2 (5.7)	4 (11.4)	3 (8.6)	-	-
	중	131	35 (26.7)	32 (24.4)	12 (9.2)	10 (7.6)	2 (1.5)	18 (13.7)	6 (4.6)	13 (9.9)	1 (0.8)	2 (1.5)
	하	46	4 (8.7)	9 (19.6)	8 (17.4)	4 (8.7)	-	2 (4.3)	15 (32.6)	2 (4.3)	4 (8.7)	2 (4.3)
성 제	상	38	13 (34.2)	9 (23.7)	3 (7.9)	1 (2.6)	-	8 (21.1)	-	3 (7.9)	-	1 (2.6)
	중	153	10 (26.1)	34 (22.2)	13 (8.5)	13 (8.5)	2 (1.3)	24 (15.7)	9 (5.9)	14 (9.2)	1 (0.7)	3 (2.0)
	하	21	4 (19.0)	3 (14.3)	4 (19.0)	1 (4.8)	-	3 (14.3)	3 (14.3)	3 (14.3)	-	-
가 정	상	14	18 (40.9)	8 (18.2)	4 (9.1)	1 (2.3)	1 (2.3)	6 (13.6)	1 (2.3)	3 (6.8)	-	2 (4.5)
	중	112	25 (22.3)	24 (21.4)	10 (8.9)	9 (8.0)	1 (0.9)	20 (17.9)	7 (6.3)	15 (13.4)	-	1 (0.9)
	하	56	14 (25.0)	14 (25.0)	6 (10.7)	5 (8.9)	-	9 (16.1)	4 (7.1)	2 (3.6)	1 (0.8)	1 (1.8)
건 강	상	24	7 (29.2)	7 (29.2)	2 (8.3)	2 (8.3)	-	4 (16.7)	1 (4.2)	1 (4.2)	-	-
	중	119	32 (26.8)	21 (17.9)	14 (11.4)	8 (6.5)	2 (1.6)	20 (17.1)	6 (4.9)	14 (11.4)	1 (0.8)	2 (1.6)
	하	65	17 (26.2)	17 (26.2)	4 (6.2)	5 (7.7)	-	10 (15.4)	5 (7.7)	5 (7.7)	-	3 (4.6)
성 격	상	26	12 (46.2)	7 (26.9)	2 (7.7)	2 (7.7)	-	2 (7.7)	-	1 (3.8)	-	-
	중	104	27 (25.9)	20 (19.4)	12 (11.1)	6 (5.6)	1 (0.9)	21 (20.4)	5 (4.6)	11 (10.2)	-	2 (1.9)
	하	82	18 (22.0)	18 (22.0)	7 (8.5)	5 (6.1)	1 (1.2)	12 (14.6)	7 (8.5)	8 (9.8)	1 (1.2)	2 (2.4)
여 가	상	44	15 (33.3)	11 (25.0)	2 (4.5)	5 (11.1)	1 (2.3)	6 (13.9)	1 (2.3)	2 (4.5)	-	-
	중	116	31 (26.6)	24 (21.0)	11 (9.7)	8 (6.5)	1 (0.8)	18 (15.3)	6 (5.6)	14 (12.1)	-	3 (2.4)
	하	52	12 (23.1)	11 (21.2)	6 (11.5)	3 (5.8)	-	11 (21.2)	4 (7.7)	3 (5.8)	1 (1.9)	1 (1.9)
사 회	상	52	20 (39.3)	11 (21.6)	5 (9.8)	4 (7.8)	-	8 (15.7)	1 (2.0)	3 (5.8)	-	-
	중	100	26 (26.0)	22 (22.0)	11 (11.0)	7 (7.0)	2 (2.0)	16 (16.0)	6 (6.0)	7 (7.0)	1 (1.0)	2 (2.0)
	하	60	11 (18.3)	13 (21.7)	4 (6.7)	4 (6.7)	-	11 (18.3)	5 (8.3)	10 (16.7)	-	2 (3.7)
교 우	상	42	12 (29.3)	9 (22.0)	5 (12.2)	2 (4.9)	-	6 (14.6)	4 (7.3)	4 (9.8)	-	-
	중	118	31 (26.3)	27 (23.3)	12 (10.5)	6 (5.3)	2 (1.5)	22 (18.8)	4 (3.8)	10 (8.3)	1 (0.8)	2 (1.5)
	하	52	14 (26.9)	10 (19.2)	3 (5.8)	7 (13.5)	-	6 (11.5)	4 (7.7)	6 (11.5)	-	2 (3.8)
이 성	상	32	8 (25.8)	4 (12.9)	7 (22.6)	1 (3.2)	1 (3.2)	7 (22.6)	-	2 (6.5)	-	1 (3.2)
	중	118	36 (30.2)	24 (20.2)	11 (9.3)	7 (6.2)	1 (0.8)	19 (16.3)	6 (4.7)	14 (11.6)	-	1 (0.8)
	하	62	13 (21.0)	17 (27.4)	6 (9.7)	6 (9.7)	-	8 (12.9)	6 (9.7)	3 (4.8)	1 (1.6)	2 (3.2)
가치·도덕	상	21	8 (38.1)	5 (23.8)	2 (9.5)	-	1 (4.8)	3 (14.3)	1 (4.8)	-	-	1 (4.8)
	중	108	27 (25.4)	21 (19.3)	13 (12.3)	10 (9.6)	1 (0.9)	16 (14.9)	5 (4.4)	12 (11.4)	-	2 (1.8)
	하	83	21 (25.3)	21 (25.3)	6 (7.2)	4 (4.8)	-	16 (19.3)	6 (7.2)	7 (8.4)	1 (1.2)	1 (1.2)

표 3 > 적응 정도에 따른 학생들의 진로 선택 분야 (대학진학)

(남자)

()안은 %

적응 정도	진로 선택 분야	원	적응 정도											
			문 학	사 범	법 학	경 상	이 학	의·치·약 학	공 학	농 수 산	가 정	예 능	특 수	무응답
학 교	상	22	1 (4.5)	2 (9.1)	·	1 (4.5)	1 (4.5)	1 (4.5)	12 (54.5)	3 (13.6)	1 (4.5)	·	·	·
	중	98	3 (3.1)	6 (6.1)	1 (1.0)	17 (17.3)	5 (5.1)	7 (7.1)	39 (39.8)	14 (14.3)	·	6 (6.1)	·	
	하	81	4 (4.9)	5 (6.2)	·	12 (14.8)	·	3 (3.7)	31 (38.3)	16 (19.8)	3 (3.7)	7 (8.6)	·	
장 래	상	36	2 (5.6)	2 (5.6)	·	5 (13.9)	2 (5.6)	3 (8.3)	18 (50.0)	2 (5.6)	·	2 (5.6)	·	
	중	106	4 (3.8)	5 (4.7)	1 (0.9)	17 (16.0)	1 (0.9)	5 (4.7)	47 (44.3)	20 (18.9)	2 (1.9)	4 (3.8)	·	
	하	59	2 (3.4)	6 (10.2)	·	8 (13.6)	3 (5.1)	3 (5.1)	17 (28.8)	11 (18.6)	2 (3.4)	7 (11.9)	·	
경 제	상	74	2 (2.7)	4 (5.4)	·	11 (14.9)	2 (2.7)	7 (9.5)	36 (48.6)	10 (13.5)	·	2 (2.7)	·	
	중	104	4 (4.0)	7 (7.1)	1 (0.8)	17 (16.7)	3 (3.2)	4 (4.0)	40 (38.1)	17 (15.9)	2 (2.4)	8 (7.9)	·	
	하	23	1 (4.3)	1 (4.3)	·	2 (8.7)	·	1 (4.3)	8 (34.8)	7 (30.4)	1 (4.3)	2 (8.7)	·	
가 정	상	54	2 (3.7)	3 (5.6)	·	8 (14.8)	1 (1.9)	2 (3.7)	28 (51.9)	10 (18.5)	·	·	·	
	중	99	4 (4.0)	10 (10.1)	1 (1.0)	16 (16.2)	3 (3.0)	7 (7.1)	34 (34.3)	16 (16.2)	2 (2.0)	6 (6.1)	·	
	하	48	2 (4.2)	·	·	6 (12.5)	2 (4.2)	2 (4.2)	20 (41.7)	7 (14.6)	2 (4.2)	7 (14.6)	·	
선 강	상	30	1 (3.3)	1 (3.3)	1 (3.3)	7 (23.3)	1 (3.3)	1 (3.3)	14 (46.7)	4 (13.3)	·	·	·	
	중	105	4 (3.8)	10 (9.5)	·	14 (13.3)	4 (3.8)	6 (5.6)	42 (40.0)	18 (17.1)	1 (1.0)	6 (5.7)	·	
	하	66	3 (4.5)	2 (3.0)	·	9 (13.6)	1 (1.5)	4 (6.1)	26 (39.4)	11 (16.7)	3 (4.5)	7 (10.6)	·	
성 격	상	50	2 (4.0)	2 (4.0)	1 (2.0)	8 (16.0)	1 (2.0)	2 (4.0)	23 (46.0)	10 (20.0)	·	1 (2.0)	·	
	중	78	2 (2.6)	7 (9.0)	·	12 (15.4)	2 (2.6)	4 (5.1)	34 (43.6)	11 (14.1)	2 (2.6)	4 (5.1)	·	
	하	73	4 (5.5)	4 (5.5)	·	10 (13.7)	3 (4.1)	5 (6.8)	25 (34.2)	12 (16.4)	2 (2.7)	8 (11.0)	·	
여 가	상	42	1 (2.4)	3 (7.1)	·	6 (14.3)	·	3 (7.1)	20 (47.6)	7 (16.7)	·	2 (4.8)	·	
	중	108	4 (3.7)	9 (8.3)	1 (0.9)	18 (16.7)	4 (3.7)	5 (4.6)	42 (38.9)	18 (16.7)	1 (0.9)	6 (5.6)	·	
	하	51	3 (5.9)	1 (2.0)	·	6 (11.8)	2 (3.9)	3 (5.9)	20 (39.2)	8 (15.7)	3 (5.9)	5 (9.8)	·	
사 회	상	52	3 (5.8)	6 (11.5)	·	11 (21.2)	1 (1.9)	3 (5.8)	18 (34.6)	9 (17.3)	·	1 (1.9)	·	
	중	74	1 (1.4)	5 (5.4)	1 (1.4)	11 (14.9)	3 (4.1)	4 (5.4)	32 (43.2)	11 (14.9)	2 (2.7)	5 (6.8)	·	
	하	75	4 (5.3)	3 (4.0)	·	8 (10.7)	2 (2.7)	4 (5.3)	32 (42.7)	13 (17.3)	2 (2.7)	7 (9.3)	·	
교 우	상	42	2 (4.7)	2 (4.7)	·	5 (11.6)	1 (2.3)	3 (7.0)	19 (44.2)	8 (18.6)	1 (2.3)	2 (4.7)	·	
	중	120	2 (1.7)	11 (9.2)	1 (0.8)	20 (16.8)	4 (3.4)	7 (5.9)	46 (38.7)	17 (14.3)	2 (1.7)	9 (7.6)	·	
	하	39	4 (10.3)	·	·	5 (12.8)	1 (2.6)	1 (2.6)	17 (43.6)	8 (20.5)	1 (2.6)	2 (5.1)	·	
이 성	상	35	2 (5.7)	1 (2.9)	·	10 (28.6)	·	3 (8.6)	11 (31.4)	7 (20.0)	·	1 (2.9)	·	
	중	90	4 (4.4)	8 (8.9)	1 (1.1)	9 (10.0)	5 (5.6)	2 (2.2)	43 (47.8)	10 (11.1)	3 (3.3)	5 (5.6)	·	
	하	76	2 (2.6)	4 (5.3)	·	11 (14.5)	1 (1.3)	6 (7.9)	28 (36.8)	16 (21.1)	1 (1.3)	7 (9.2)	·	
가치·도덕	상	32	2 (6.3)	·	·	6 (18.8)	·	1 (3.1)	14 (43.8)	5 (15.6)	·	4 (12.5)	·	
	중	75	1 (1.3)	10 (13.3)	·	9 (12.0)	3 (4.0)	6 (8.0)	31 (41.3)	12 (16.0)	1 (1.3)	2 (2.7)	·	
	하	94	5 (5.3)	3 (3.2)	1 (1.1)	15 (16.0)	3 (3.2)	4 (4.3)	37 (39.4)	16 (17.0)	3 (3.2)	7 (7.4)	·	

〈 표 4 〉 적응 정도에 따른 학생들의 진로 선택 분야(대학진학)

(여자)

()안은 %

적응 정도	진로선택분야 인원	진로선택분야											
		문 학	사 범	법 학	경 상	이 학	의·치·약 학	공 학	농수산	가 정	예 능	특 수	무응답
학 교	상 16	·	6 (40.0)	2 (13.3)	·	·	2 (13.3)	·	2 (13.3)	2 (13.3)	2 (13.3)	·	·
	중 117	22 (19.5)	20 (16.9)	3 (2.3)	10 (8.5)	1 (0.8)	16 (13.6)	·	3 (2.5)	11 (9.3)	21 (17.8)	1 (0.8)	9 (7.6)
	하 79	6 (7.6)	7 (8.9)	16 (20.3)	4 (5.1)	5 (6.3)	4 (5.1)	·	7 (8.9)	1 (1.3)	11 (13.9)	18 (22.8)	6 (7.6)
장 배	상 35	4 (11.4)	8 (22.9)	3 (8.6)	·	·	4 (11.4)	·	3 (8.6)	6 (17.1)	5 (14.3)	·	2 (5.7)
	중 131	20 (15.3)	26 (19.8)	2 (1.5)	8 (6.1)	3 (2.3)	18 (13.7)	·	2 (1.5)	15 (11.5)	26 (19.8)	·	11 (8.4)
	하 46	6 (13.0)	7 (15.2)	4 (8.7)	7 (15.2)	2 (4.3)	3 (6.5)	·	1 (2.2)	3 (6.5)	10 (21.7)	1 (2.2)	2 (4.3)
경 제	상 38	8 (21.1)	7 (18.4)	4 (10.5)	3 (7.9)	·	3 (7.9)	·	3 (7.9)	1 (2.6)	4 (10.5)	·	5 (13.2)
	중 153	20 (13.1)	31 (20.3)	4 (2.6)	12 (7.8)	3 (2.0)	20 (13.1)	·	3 (2.0)	17 (11.1)	34 (22.2)	1 (0.7)	8 (5.2)
	하 21	2 (9.5)	3 (14.3)	1 (4.8)	·	2 (9.5)	2 (9.5)	·	·	6 (28.6)	3 (14.3)	·	2 (9.5)
가 정	상 44	4 (9.1)	7 (15.9)	4 (9.1)	3 (6.8)	·	6 (13.6)	·	1 (2.3)	7 (15.9)	8 (18.2)	·	4 (9.1)
	중 112	21 (18.8)	23 (20.5)	2 (1.8)	8 (7.1)	2 (1.8)	12 (10.7)	·	4 (3.6)	8 (7.1)	24 (21.4)	1 (0.9)	7 (6.3)
	하 56	5 (8.9)	11 (19.6)	3 (5.4)	4 (7.1)	3 (5.4)	7 (12.5)	·	1 (1.8)	9 (16.1)	9 (16.1)	·	4 (7.1)
건 강	상 24	2 (8.3)	5 (20.8)	2 (8.3)	1 (4.2)	·	4 (16.7)	·	2 (8.3)	3 (12.5)	3 (12.5)	1 (4.2)	1 (4.2)
	중 119	16 (13.8)	20 (17.1)	4 (3.3)	8 (6.5)	1 (0.8)	17 (14.6)	·	3 (2.4)	14 (11.4)	27 (22.8)	·	9 (7.3)
	하 65	11 (16.9)	15 (23.1)	3 (4.6)	6 (9.2)	4 (6.2)	3 (4.6)	·	1 (1.5)	7 (10.8)	10 (15.4)	·	5 (7.7)
성 격	상 26	2 (7.7)	9 (34.6)	2 (7.7)	·	·	2 (7.7)	·	1 (3.8)	3 (11.5)	3 (11.5)	·	4 (15.4)
	중 104	16 (15.7)	18 (17.6)	4 (3.7)	8 (7.4)	·	16 (15.7)	·	2 (1.9)	12 (11.1)	20 (19.4)	1 (0.9)	7 (6.5)
	하 82	12 (14.6)	14 (17.1)	3 (3.7)	7 (8.5)	5 (6.1)	7 (8.5)	·	3 (3.7)	9 (11.0)	17 (20.7)	·	5 (6.1)
여 가	상 44	4 (8.3)	9 (19.4)	4 (8.3)	4 (8.3)	·	5 (11.1)	·	4 (8.3)	5 (11.1)	6 (13.9)	·	5 (11.1)
	중 116	18 (15.3)	23 (19.4)	3 (2.4)	9 (8.1)	1 (1.6)	11 (9.7)	·	2 (1.6)	16 (13.7)	26 (22.6)	1 (0.8)	6 (4.8)
	하 52	8 (15.4)	10 (19.2)	3 (5.8)	2 (3.8)	3 (5.8)	9 (17.3)	·	1 (1.9)	3 (5.8)	8 (15.4)	·	5 (9.6)
사 회	상 52	5 (9.8)	13 (25.5)	3 (5.9)	3 (5.9)	·	6 (11.8)	·	2 (3.9)	5 (9.8)	10 (19.6)	·	4 (7.8)
	중 100	18 (18.0)	17 (17.0)	2 (2.0)	7 (7.0)	3 (3.0)	14 (14.0)	·	4 (4.0)	13 (13.0)	13 (13.0)	1 (1.0)	8 (8.5)
	하 60	7 (11.7)	11 (18.3)	4 (6.7)	5 (8.3)	2 (3.3)	5 (8.3)	·	·	6 (10.0)	18 (30.0)	·	2 (3.3)
교 우	상 42	11 (26.8)	8 (19.5)	3 (7.3)	1 (2.4)	·	4 (9.8)	·	1 (2.4)	3 (7.3)	7 (17.1)	1 (2.4)	2 (4.9)
	중 118	17 (14.3)	22 (18.8)	3 (2.3)	11 (9.0)	2 (1.5)	17 (14.3)	·	4 (3.8)	13 (11.3)	20 (17.3)	1 (0.8)	8 (6.8)
	하 52	4 (7.7)	12 (23.1)	4 (7.7)	2 (3.8)	3 (5.8)	4 (7.7)	·	·	6 (11.5)	13 (25.0)	·	4 (7.7)
이 성	상 32	3 (9.7)	5 (16.1)	2 (6.5)	5 (16.1)	·	7 (22.6)	·	1 (3.2)	2 (6.5)	4 (12.9)	·	2 (6.5)
	중 118	16 (13.2)	27 (22.5)	4 (3.1)	5 (3.9)	2 (1.6)	17 (14.0)	·	4 (3.1)	14 (11.6)	25 (20.9)	1 (0.8)	6 (5.4)
	하 62	11 (17.7)	9 (14.5)	3 (4.8)	6 (9.7)	3 (4.8)	5 (8.1)	·	1 (1.6)	8 (12.9)	10 (16.1)	·	6 (9.7)
가치·도덕	상 21	1 (4.8)	5 (23.8)	·	1 (4.8)	·	2 (9.5)	·	2 (9.5)	7 (33.3)	1 (4.8)	·	2 (9.5)
	중 108	14 (13.2)	23 (21.1)	3 (2.6)	8 (7.0)	2 (1.8)	17 (15.8)	·	2 (1.8)	8 (7.0)	25 (22.8)	1 (0.9)	7 (6.1)
	하 83	14 (16.9)	13 (15.7)	6 (7.2)	6 (7.2)	3 (3.6)	7 (8.4)	·	2 (2.4)	11 (13.3)	15 (18.1)	·	6 (7.2)

진로선택 및 결정과정과 적응성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질문지는 여러분의 진로선택 및 결정과정과 관련된 적응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두 가지 질문지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는 진로선택과 결정과정을 묻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적응에 관한 표준화 검사입니다.

이 질문지의 대답에는 옳은 답, 틀린 답이 없으며 여러분들이 정성껏 대답해준 내용들은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과 가정, 그리고 학교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본 연구에 협조하는 뜻에서 한 분장도 빠뜨림 없이 솔직하고 성의 있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88. 7.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강시영

-64-

I. 다음은 여러분의 개인적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의 _____에 V 표시하거나 기술하여 주십시오.

- 1. 성별 _____ 남 _____ 여
2. 학년 _____ 고 1 _____ 고 2 _____ 고 3
3. 학교 및 학과 _____ 인문계 _____ 반
_____ 공업계 _____ 과
_____ 농업계 _____ 과
_____ 상업계(중합고) _____ 과
_____ 수산계 _____ 과
4. 고교 졸업후의 계획 _____ 대학진학 _____ 취업

II. 다음은 진로선택 및 결정과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해당되는 번호의 _____에 V 표시하거나 기술하여 주십시오.

- 1. 사회로 진출한다면(고교 혹은 대학 졸업후) 어떤 분야로 나가고 싶습니까? (한 가지만 고르시오.)
a. 교육분야
b. 사무관리분야
c. 의료분야
d. 보건의생분야
e. 공급기술분야
f. 문화·어학분야
g. 가정·의상분야
h. 예술·예능분야
i. 농수산분야
2. 만일 대학에 진학한다면, 어떤 계열로 진학하고 싶습니까? (한 가지만 고르시오.)
A. 문과계열
B. 사범계열
C. 법학계열
D. 성장계열
E. 이학계열
F. 의·치·약학계열
G. 공학계열
H. 농·수산계열
I. 가정계열
J. 예능계열
K. 특수계열

3. 귀하가 성장하면서 품었던 진로선택 내용 및 그 이유를 위 1,2 문항의 보기와 아래의 보기에서 골라 번호를 써 주십시오.

Table with columns: 시기, 희망했던 진로(사회진출분야, 이·유, 대학진학분야, 이·유) and rows for 국민학교, 중, 고.

- 선택이유: 1. 안정성이 있어서
2. 승진기회 및 장애성이 있어서
3. 보수가 좋아서
4. 적성 및 흥미에 맞아서
5. 자율성 및 창의성이 보장되어서
6. 부모님의 기대에 순응키 위해
7. 사회적 대우가 높아서
8. 가정이 곤란하여
9. 기타 (자세히 써 주십시오.)

5. 진로를 선택할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요인은 무엇입니까?

- 부모의 권유 _____ 형제·친척의 권유
교사의 권유 _____ 매스컴
동료·선배의 권유 _____ 가정환경
학업성적 _____ 적성·취미
기타 _____

6. 귀하는 귀하의 장애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 나의 미래는 매우 희망적이고 안정적이라고 확신한다.
비교적 안정되고 희망적인 미래가 될 것 같다.
다소 불안정한 미래가 될 것 같다.
생각해 보지 않았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